

강의전담교수제 도입 추진

연구업적 의무없이 강의 전담하는 초빙교원

최소 30명 이상 총원 ... 교원확보율 증가할 듯

본교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는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강의전담교수는 초빙교원으로 계약기간 동안 강의를 맡고 승진이나 재임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계약직 교원을 말한다. 강의전담교수는 초빙교원으로 인정되는데 그 기준은 △교원자격 기준 충족하는 자 △근무기간 1년 이상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는 자이다. 본교는 강의전담교수 계약기간을 2년~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

다. 이들은 전임교원과 달리 일정량의 연구업적의 의무가 없다. 이러한 강의전담교수제는 교원 확보율을 2005년까지 55%, 2008년까지 65%를 달성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도입하는 것으로서 현재 52%에 불과한 본교의 교원 확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되는 강의전담교수 채용 인원은 최소 30명 이상이며 책임 강의의 시간은 9~12시간 정도로 계획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전공강의는 주로 전임교수가 맡기 때문에 강

의전담교수는 교양강의를 위주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전담교수의 책임 강의의 시간은 강의준비를 위한 연구 시간의 확보와 학교에서 채용한 강사 인원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은 전임교수 확보보다 적은 재정적 부담으로 교원확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강의전담교수는 강사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염준근(통계학) 교수회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전임교수가 아닌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은 최선의 방법만은 아니다"며 "영구직장이 아니라면 강의전담교수들은 결국 강사와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본교는 현재 강의전담교수제와 관련한 규정개정을 준비 중이며 법인의 승인절차를 거쳐 임용·위촉에 관한 사항의 확정은 다음달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강의전담교수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중앙대, 한양대 등이 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총장에게 일부 인사임면권 위임

지난 이사회 상임이사·불교병원장 선임

지난 달 20일과 지난 6일 교무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제 203, 204차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총장권한 강화와 분과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이 이뤄졌다. 비전임교원과 계약직 직원 등의 일부 인사 임면권이 이사장으로 부터 총장에게로 위임된 것이다. 또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상임이사에는 만장일치로 영배스님이 결정됐다. 이사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상임이사 선임 △일산불교병원장 선임 △교육을 기본 재산 매일 신불교 병원 실사 보고 및 대책 마련이다. 상임이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세칙도 제정됐다. 시행세칙을 살펴 보면,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위임

전결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사장이 부재시에는 상임이사가 대신 결재 하고 다만, 미리 그 처리방침을 지시 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이 이뤄졌다. 비전임교원과 계약직 직원 등의 일부 인사 임면권이 이사장으로 부터 총장에게로 위임된 것이다. 또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상임이사에는 만장일치로 영배스님이 결정됐다. 이사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상임이사 선임 △일산불교병원장 선임 △교육을 기본 재산 매일 신불교 병원 실사 보고 및 대책 마련이다. 상임이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세칙도 제정됐다. 시행세칙을 살펴 보면,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위임

100여원을 각 부속병원 고유목적 사업비 준비금을 수합해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일산불교 병원 개원 예산 승인은 기체 처리할 금액에 대한 산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학교는 개원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국내 금융권 등에서 기채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이번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일산불교병원 한방병원장 이원철 한의과대 교수, 행정처장 성익재(대한병원협회 전사무총장) △교원승진임용 조훈영 물리학과 교수 외 35명 △총무부관(가칭, 중앙대 필동병원) 매입관련 고발에 따른 대책 마련, 매입경위 작성해 검찰에 소명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 추진 △불교대학 발전위원회 관련 규정 확정 등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개방적 학술모임 에코포럼 창립

불교 생태학 연구저변 확대 목적

생태·환경문제에 관한 여러 학문의 학제적 교류와 실천운동을 지원하는 개방적 학술모임 '에코포럼'이 창립된다. 에코포럼은 △고건 전 국무총리 △권대준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홍기삼 동국대 총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덕암세미나실에서 창립행사와 제 1회 정례포럼을 연다. 이와 관련해 박경준(에코포럼 위원장·불교학) 교수는 "본교의 전략적인 특성화 분야인 불교생태학의 연구저변 확대와 생태·환경과 관련된 심도있고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에코포럼'의 목적은 △불교생태학 이론과 생태환경 기술정책의 연구발표 토론 △학제적 연구와 협동교육을 위한 문화소통의 기반 조성 △관련분야간 협동연구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시민사회 및 종교계의 실천운동을 지원하기 위

한 개방적 학술연구 등이다. '에코포럼'은 앞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정례 에코포럼'을 개최한다. 오는 16일 열리는 제 1회 '정례 에코포럼'의 주제는 '시스템과 상호의존성'으로 확정됐으며 △육망과 생명 △지속가능한 발전 △희망의 공동체 등이 기별주제로 검토됐다. '정례 에코포럼'은 매 학기 단위로 주제를 정해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5명의 연구발표자가 매월 1명씩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발표논문과 토론결과는 '불교생태학총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또한 '정례 에코포럼' 외에 매 학기 1회 정도의 쟁점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생태·환경과 관련된 현안들도 다룰 예정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만해의 뒤를 이어 ... 제10회 전국고교생백일장 이 우리학교에서 지난 9일 열렸다. 이번 백일장은 운문, 산문 등 각 부문별 17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사)민족문화학회의에서 주관하는 것이며, 우리 학교 등 4개 단체에서 후원한다. 사진은 민해시비 앞에서 참가자가 글을 짓고 있는 모습이다. 황수진 기자 hjs228@dongguk.edu

총학생회 11월 9일부터 3일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후보자 등록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원진·정동4)가 △37대 총학생회 △37대 총대의원회 △19대 총여학생회 △각 단과대 선거를 다음달 9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 △총학생회 입후보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600인 이상의 재학생 추천을 받아야 하며, △총대의원회 입후보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재적대의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총여학생회

입후보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하고 300인 이상의 재학생으로부터 추천 받아야 입후보 할 수 있으며 △단과대 입후보자는 각 단과대 세칙에 준하는 자여야 한다.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신청서 △추천서 등을 오는 20일부터 22일 오후 12시까지 총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관련해 중선위원장은 "학생회비를 환불한 학생에 대해 선거권 박탈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축구부 전국체전 8강 진출

본교 축구부(감독=김용해)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가운데 지난 9일 충청남도 대표로 올라온 단과대를 만나 1:0로 첫 경기를 승리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충북대학교 운동장에서 배재대를 맞아 경기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총 16팀이 참가한 가운데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오는 14일 오후 2

시에 결승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야구부(감독=김학용)는 오는 19일부터 9일간 열리는 '제59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남해 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진행되며 총 30팀이 참가한 가운데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야구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송호대를 상대로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社告)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원서접수 : 10월 15일까지
전형일시 : 10월 14일, 15일
일 총매일
응시자격 : 1학년 재학생
원서교부 및 문의 :
V동 1층 동대신문사
2260-3491-2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설명회

일시 : 10월 13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동국관 M306호
프로그램 : 영상물 상영, 동대신문사 소개, 동대신문사 동인과의 만남, Q&A, 신문사 탐방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11월 1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양심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중간고사기간입니다.
커닝의 결과는 A+이지만
당신의 진정한 실력은 F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후에도
지워지지 않는 결과 받으세요.

영어패스제 절반 가까이 통과 못해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 이번달까지 제출해야 졸업가능

지난달 18일 언어교육원(원장=봉일원·독일학)이 2001학년도 신입생과 2003학년도 일반편입생을 대상으로 패스제 토의 무리시험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시자 155명 중 졸업요건 토의 점수 통과자는 2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음해 2월 졸업예정인 영어능력 졸업요건 대상자 595명 중 절반을 조금 넘는 321명의 학생만이 외국어 패스제 점수를 충족시킨 상태다.

'외국어 패스제'는 졸업하기 전까지 △토의 △토플 △토픽 중 하나의 성적을 단과대 별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한 제도

로서 지난 2001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학칙 제1장 6조 3항에는 '외국어 패스신청서의 제출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하게 되는 마지막 학기의 1/3이전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학칙에 명시된 제출기한인 이번 달 안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어 시험 점수를 제출해야 졸업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졸업대상자 중 274명의 학생이 아직 미 통과자이고, 지난 토의 시험 전체평균이 약 570점인데다 300점대의 낮은 점수대 학생들도 있어 대거 미출입자가 생겨날 우려가 있다. 외국어 졸업요건 점

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졸업'이 아닌 '수료'로 인정되며 졸업이 연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안책은 없는 현실이다. 언어교육원 봉일원 원장은 "현재 본교 졸업생들의 영어실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체제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상당수 미패스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언어교육원 김영수 과장은 "첫 시행이라 학생들이 시험의 중요함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실제로 입학 후 영어공부를 전혀 하

지 않다가 이 시험제도 때문에 최근 영어공부를 시작해 점수가 낮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시험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언어교육원에서는 매달 1회 시행하는 패스제 토의시험 등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언어교육원은 영어 패스제 시험 및 토의 토의 시험 점수를 오는 15일까지 언어교육원 사무실에서 받는다. 시험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혜화관 1층과 2층 강의실에서 열리며 응시료는 5천원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상록원 녹화사업 착수

새·곤충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 조성

우리학교가 지난달 녹색문화재단이 지원하는 '대학의 산림/임업 사회교육 지원 사업'에서 선정돼 상록원 옥상에 생물서식 공간을 조성하는 '녹화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건축공학과에서 응모했으며 녹색문화재단으로부터 총 1억 3천여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녹화사업은 오는 11월초에 설계도를 완성해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학교는 특수 사업인 만큼 이번 입찰을 일반적인 입찰과 달리 전문적인 업체에 맡길 생각이다. 완공은 내년 3월에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학교는 녹색문화재단 이외에도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녹화사업에 채택됐지만 지원이 더 많은 녹색문화재단을 선택했다. 이에 건축공학과는 "우리학교가 두 곳에서 선정된 이유는 남산

과 인접해 있는 등 지리상 여건이 좋았다"며 "남산 생태계의 축을 본교 상록원으로 연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건축공학과는 그동안 방치돼 있던 옥상을 본교 구성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응모했다.

이번 사업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푸른도시가 푸기와 같은 환경캠페인 그리고 본교를 외부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건축공학과 양인호 교수는 "형식적으로 나무 몇 그루 심는 기존의 녹화사업과는 다르게 새, 곤충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회전무대

잘못된 전승

○...며칠 전 교내에서는 한바탕 문자 소동이 일어났는데. 알아보니, 학생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려는 교직원들의 배려에서 발송된 학사행정 안내 문자가 내용이 지나치게 축약되는 바람에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욱 혼란을 일으켰다고.

때문에 며칠 간 담당부서에는 문의전화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왠, "학사행정 안내 문자,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봉변당한 강의

○...지난 5일 어떤 강의 학생들은 갑작스런 야외수업에 당황했다는데. 이유인즉 강의시간과 대학원 청구논문초록발표 시간이 겹쳐 강의실에서 수업 중이던 학생들이 중간에 야외에서 수강해야했다고. 강의실 사용 시간에 대해 사전에 논의를 충분히 진행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왠, "한 시간에 두 가지 역할하기, 강의실도 멀티가 대체?!"

고무줄 운영

○...동국관 5층에 있는 BSC10은 과도한 유통성으로 문제라는데. 알아보니 오전 9시에 개방하는 컴퓨터실이 종종 정오가 되어도 개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운영시간을 명확히 정해 줘야 변동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BSC10 관리자 왠 "컴퓨터실의 경영원칙, 철쭉날쭉한 운영 마인드?!"

선거운동 환불사이

○...선거기간을 앞두고 총대의 원회는 학생회비를 환불받은 학생에 대한 선거운동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해 학교측은 총대의원회측이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환불자 공고를 요구하더라도 환불받은 학생들의 개인신상보호 차원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한 해 동안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학생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정확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왠 "학생회비를 환불 받아도 학생회의 사업에 참여가능?!"

연구지원 인프라사업

해당교수 컴퓨터 지급

연구지원팀에서 연구지원 인프라 사업으로 인문·사회 계열 교수 119명에게 컴퓨터를 제공한다. 이는 교원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서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지원팀은 지난 9월부터 인문·사회계열 재임 2년 이상 교수들에게 신청을 받았으며 10월 중으로 109명에게 데스크탑 본체와 LCD 모니터가 제공되고 10명에게 데스크탑 본체가 제공된다.

헌법특강 신청

13일부터 사흘간

계산고시학사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헌법특강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총 15회 진행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현재 헌법법학원 헌법강사로 있는 황남기(인철90출)동문이 강사로 초청돼 현직 교수들이 출제한 진도별 모의고사 40문제를 강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강은 정보문화관 P403에서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은 학업관 J201에서 진행되며 수강료는 계산고시학사 사법 시험반 입실자의 경우는 1만원, 우리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2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5일 5시까지 계산고시학사 2층 조교실에서 진행된다.

도서관, 시험기간동안

임시열람실 개방

중앙도서관(관장=최인숙·철학)이 2학기 중간고사 기간동안 학생들의 열람실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임시열람실을 개방한다.

개방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임시열람실은 중앙도서관 지하 3, 4층에 위치하고 있다.

총학생대위 야식판대

오늘(11일) 오후 9시부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제동·불교4, 이하 비대위)가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오늘(11일)부터 도서관에서 야식을 판매했다.

이번 판대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금요일을 제외한 날에 진행된다. 판매 시간은 오후 9시부터다.

이와 관련해 김제동 비대위원장은 "라면, 김밥, 빵, 음료 등 간단한 간식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고승초청 법회 12일

고승초청법회가 내일(12일) 오후 4시 정각원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은 '현대인이 살아갈 삶의 지표'라는 주제로 열린다. 그리고 현재 중앙총회의장이자 대한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이자 대한스님들이 강연하며 교수·직원·학생·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의있습니다 ... 지난 8일 중앙당에서는 국제법학회의 국제모의재판이 열렸다. 이 날 모의재판 '살인자 없는 살인사건'에서 는 배심제의 장단점을 고찰해보았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동문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무지식 습득 뿐 아니라 인적교류 서비스 제공

대화협력처 기획사업팀이 졸업생들의 직장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동국인 커리어 파워업'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실무지식 재교육 외에도 동문간 그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인적 교류를 유지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졸업 3년 이내의 직장인 동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분야 △문제해결 △전략기획 △협상 △HRD(인적자원개발) 등 5개 분야에 자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 마케팅 분야의 경희대 경영대학원 조서환 교수의 '21C 마케팅 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강의를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우리학교 예술극장에서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상의 공지사항에서 가능하며 참가자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동문 서비스 프로그램의 우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분야의 동문간 그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간의 인적 교류를 유지하는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동문 상담 프로그램 △동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정훈 기획사업팀장은 "급박하게 변화하는 대학현실에서 동문과 학교의 관계를 상호협력의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공모전 입상자 선정

수상작 전시회 오는 14일 정보문화관

정보산업대학(학장=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에서 실시한 '제2회 정보산업대학 학생소프트웨어 작품 공모전' 입상자가 선정됐다.

대상은 정보통신공학과 하태진, 장운정 학생이 선발됐으며 이 학생들에게는 상패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금상은 김관호(정보시스템공)학생이 선정돼 상장과 상금 70만원을 수여받는다.

은상은 총 2팀으로 △컴퓨터공학과 이진현, 박지은, 인석원, 변진원, 장형서 군이 선발돼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 받는다.

또한 동상은 △정보통신공학과 정수길, 최원만, 정창수, 김민정 팀 △정보시스템학과 △서보인, 장준, 박관호, 정두영 팀 △박석현(컴공), 박병준(컴퓨터공) 팀 △컴퓨터공학과 박유진, 김미화, 이준영 팀이 선정됐다. 또한 금상은 김관호(정보시스템공)학생이 선정돼 상장과 상금 70만원을 수여받는다.

은상은 총 2팀으로 △컴퓨터공학과 이진현, 박지은, 인석원, 변진원, 장형서 군이 선발돼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 받는다.

또한 동상은 △정보통신공학과 정수길, 최원만, 정창수, 김민정 팀 △정보시스템학과 △서보인, 장준, 박관호, 정두영 팀 △박석현(컴공), 박병준(컴퓨터공) 팀 △컴퓨터공학과 박유진, 김미화, 이준영 팀이 선정됐다. 또한 금상은 김관호(정보시스템공)학생이 선정돼 상장과 상금 70만원을 수여받는다.

은상은 총 2팀으로 △컴퓨터공학과 이진현, 박지은, 인석원, 변진원, 장형서 군이 선발돼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 받는다.

교환학생 접수 25일까지

용곡대 외 10개 대학에 1년 동안

2005학년도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이 실시된다.

해당학교는 일본 용곡대학의 4개 대학, 중국 북경대학 외 4개 대학, 대만 1개 대학이다.

파견기간은 다음해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년이며 대학별로 지원자격과 초청 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통적인 자격으로는 학부과정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하며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또한 용곡대학은 문과(철학, 사회), 이·공계지원자, 고마자와대학은 사범대(지리교육) 지원자를 받는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까지이며 면접은 27일 이뤄진다. 신청서류는 △해의 자매대학 교환학생 지원 신청서 △재학생증서 △성적증명서(학부 과정 성적 포함) △어학능력시험인정서 등이다.

전형방식은 학부과정 성적평가 50%, 면접평가 50%이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10/11)	콩나물국밥 (1800) 안동찜닭 (2000) 불고기버블밥 (2000)	참치김치찌개 (1800) 떡볶고기 (2000) 순살돈가스 (1800)	된장찌개 (3200) 버섯전골 (3500) 제육볶음 (3500)
화 (10/12)	설렁탕 (1800) 꾸꾸미제육볶음 (2000) 피망잡채 (2000)	쇠고기국밥 (1800) 돈육피망잡채 (2000) 김치볶음밥 (1800)	된장찌개 (3200) 갈비탕 (3800) 이면수국이 (3500)
수 (10/13)	돈갈비김치찌개 (2000) 소고기볶음밥 (1800) 간지장 (1800)	설렁탕 (1800) 간자장밥 (1800) 닭도리탕 (2000)	된장찌개 (3200) 떡김치찌개 (3500) 비빔밥 (3500)
목 (10/14)	꼬치어묵우동 (1800) 돈정조림 (2000) 치킨볶음밥 (1800)	꼬치어묵우동 (1800) 제육볶음 (2000) 육채비빔밥 (1800)	된장찌개 (3200) 떡배기불고기 (3800) 고등어무조림 (3500)
금 (10/15)	소고기당면탕 (1800) 오징어김치볶음 (2000) 갈비갈비탕 (1800)	감자탕 (1800) 고구마별미밥 (1800) 오징어소면무침 (2000)	된장찌개 (3200) 오징어찌개 (3500) 닭갈비 (3500)

■금주의 추천메뉴■

감자탕 (상록원 금요일 조식)

감자탕의 역사는 삼국시대 때 전라도 지방에서 돼지뼈를 우려내어 뼈가 약한 환자나 노약자에게 먹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주재료인 돼지등뼈에는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B1이 풍부하여 골다공증과 노화방지에 도움이 된다. 많이 먹어도 속이 편하고 소화기 잘 되는 음식이다.

동약게시판

'2005 환경기업정보' 책자 배부

배부수량: 400권
대상: 취업예정자
취업지원팀에서 선착순 배부

실전모의면접

10월 15일
오후 1시~오후 5시
분과 중강당
개발면접, 압박면접, 토론면접 등
면접인 윤찬진 KBS 품의 파라마드 이사

교육인의 밤

10월 16일 오후 5시
상록원

제30회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

희곡분과 실습공연
'사백번째 행방불명'
10월 14일~15일
오후 4시 30분, 오후 7시 30분
학생회관 5층
극예술연구회 소극장

제1회 대학생 마케팅 프로모션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10월 11일~11월 10일
심사발표: 11월 22일
문의: webmaster@lgcare.co.kr

코리아 게임스 컨퍼런스

10월 14일~16일
삼성동 코엑스 3층 장보고홀, 컨퍼런스 센터
http://kcg.gameinfinity.or.kr

취업

(주)삼신

응시자격: 대졸 및 예정자, 토익 800 이상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어학 성적증명서 사본1부
온라인 접수: hckim@samsun.co.kr
제출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 5/6F 110-755
제출기한: 10월 12일까지
문의: 02)3998-622

S O I

모집부서: 인턴사원(임시직 사원)
채용부서: 이공계-100명, 상경계·법학·전산-20명
응시자격: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 전학년 평균평점 3.0점 이상인 자, 병역필 또는 군 면제자
제출기한: 10월 21일까지
문의: 02)3772-5123

해운센터 내 문구점

모집: 남자
월급: 70만원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모집기한: 10월 14일까지
문의: 02)752-9966

이주의 본고역사

권투부 김광선 군 월드컵복싱대회서 한국 첫 금메달

본교 권투부 김광선(건축1)선수가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3회 월드컵 복싱 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복싱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 한국 복싱사에 업적을 남겼다.

6대주에서 선발된 10개 팀 24개국이 출전 대륙별 대항전 형식을 띤 이번 대회에서 김 선수는 첫날 라이트 플라이급 1회전에서 미국의 호세 로사리오에 판정승, 20일 준결승전에서 태국의 완수라 데지에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 그리고 22일 마지막 결승전에서 소련의 에스 자노프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내최초 '학교채' 발행

재정난 해소, 16억원 규모

본교는 1991년 재정난 완화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학교채를 발행했다.

총16억에 달하는 학교채 발행은 10만원권 1만장, 30만원권 1천장, 50만원권 4백장, 1백만원권 1백장 등 모두 1만 1천 5백장으로 학부모와 동문들을 중심으로 무이자 매각되었다.

학교채 발행은 지난해 8월 실증됐듯이 재단의 전일금이 없는 재정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교당국이 기본계획을 마련 그동안 한국 사립대학법인협의회 및 문교부에 통보, 문교부로부터 재정난 해소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얻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달 말 동악 곳곳 단과대 행사

사회학과 K교수 2년 휴직 권고

불교대·경영대 연합 체육대회 첫 시행

학생회, 휴직 아닌 해임요구 시위 계속

이번 달 말 각 단과대 행사가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

▲ '불교대 가을답사'가 오는 28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 행사는 불교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가을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답사는 충남 계룡산에 위치한 갑사와 전남 △송광사 △쌍봉사 △백련사 △보림사 △대흥사 등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8일부터 참가자 모집 대자보에 이름을 쓰거나 불교대 학생회실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불교대와 경영대 연합 체육대회가 오는 22일 오후 1시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경기는 △발야구 △줄다리기 △피구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불교대 박동국(불교

4) 부학생회장은 "불교대와 경영대의 단합을 위해 마련했다"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즐길 수 있는 경기로 구성돼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과대 '능금제'는 오는 27일부터 2일간 통일광장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학과별 장기자랑 △소모임 공연 △영화제 등으로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대자보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정보산업대(회장=김영훈·필티공3) 축제가 정보문화관 앞에서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팀대항전=27일 △재주꾼 선발대회=28일 △디카 사진전=27일~28일 등으로 계획될 예정이다.

팀대항전은 5명이 팀을 이루어

스피드 게임과 단체줄넘기 등의 5종목을 대항해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된다.

재주꾼 선발대회는 재미있는 장기를 선보인 2팀을 선정해 △1등=핸드폰 △2등=전자사전을 증정할 예정이다.

디카사진전은 1인당 2장을 게시해 스티커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이 행사들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정산대 학생회실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사범대 학생회(회장=김용환·국교4)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농구, 피구, 발야구, 족구 등 과별 체전을, 25일부터 29일까지 영화제, 가요제를 진행하고 각 과별 주점 개점을 포함한 축전을 학

림관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예술대(회장 = 이진영·영화4)는 '도시락제'를 이달 마지막 주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전시회 △공동구매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으로 구성되며, 26일부터 5일간 만해광장, 학술문화관 K동 1층 로비 등에서 진행된다.

또한 30일에는 만해광장에서 예술대 체육대회가 열린다.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김윤권·정통4)는 '남산골 한마당'을 오는 26부터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26일 = 아나바다 물물교환장터, 노래자랑 △27일 = 학과 장기자랑 및 각 학과 1년 보고, 소모임 공연으로 이뤄지며 통일광장에서 열린다.

본교 사회학과 K교수문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K교수에게 2년 휴직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사회학과 학생회(회장=유민지·사회3)는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지난 6일 오후 1시 본관 앞에서 열었다.

이번 집회에서 30여명의 학생들은 △집회취지 설명 △현재 상황 보고 △학원 대표 규탄 발언 △'사회학과 문제 조사위원회 규탄 성명서 낭독 △상징의식 등으로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학생들은 "2년 휴직은 5년 동안 지속된 사건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휴직이 아닌 해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K교수 해임은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회의에서 사안이 다뤄진 것은

사실이나 학교 측의 방안에 대해 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해서 소집되었다"며 "때문에 다음회의 때 총장이 참가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해 현재까지는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학과 학생들은 6일 집회 이후 다음날부터 본관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다. 릴레이 시위는 하루 3~5명씩 오는 19일까지 계속

되며 오는 20일에는 'K교수 해임을 위한 연대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민지 회장은 "오는 20일 열릴 집회는 사회학과 학생뿐만이 아닌 타학과 및 단과대의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동악로 예의 상설시대



를 올라가고 있다.

우리학교의 한 여학생과 타 대학 2명의 남학생이 학교 주변에서 술을 마신 후 학교에 들어와 만취한 상태로 팔정도 주변을 배회하다 코끼리 상에 올라타려 한 것이다. 이에 팔정도에서 야간 경비를 보고 있던 한 수위 근무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가가 훈계를 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있던 남학생들은 자신들에게 훈계를 하는 그 근무자가 큰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수위실로 다가와 언성을 높이며 폭행을 했다.

이에 당시 함께 근무를 보고 있던 다른 근무자가 가해 학생들을 말리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자 학생들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뒤로 한 채 정문을 넘어 장충단 공원 쪽으로 도망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현재 피해를 당한 근무자는 전치 6주를 진단 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가해 학생들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현재 양 측이 합의 중에 있지만 피해자가 완감을 넘긴 혐오는 노인이었다는 점과 가해자들이 20대를 갓 넘긴 대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솥출함을 남긴다.

실제로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 학교 기물을 파손하거나 팔정도 코끼리 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학생들 중 일부는 이를 저지하려는 자신의 할아버지 연배의 근무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지식인들의 전당이라는 대학, 그 곳에서 벌어진 이 '부끄럽기만' 한 사건을 통해 현재 우리의 '도덕 불감증'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동연제 '너나들이' 26일부터

동아리 청정지역 등 다양한 행사 마련

동아리 연합회(회장=이동철·독문4, 이하 동연)이 오는 26일부터 3일동안 '2004 동연제'를 진행한다.

이번 동연제는 '너나들이'를 모토로 진행되며 이는 '우리 동아리 사이와 같이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는 뜻의 한글말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동아리 청정지역 선발대회 △단체놀이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하는 나눔장터 △영화제 △실내의 공연 등이 있다.

동아리 청정지역 선발대회 주최 측은 지난 22일 1차 사진촬영을 했으며 이번 주에 2차 사진촬영을 해 각 분과별로 동아리실 환경관리를 가장 잘 한 곳에 10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며 오는 28일 학생회관 앞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된 동연의 한 관계자는 "시상식에 오지 않으면 다음순위를 받은 동아리에게 상품이 이동되므로 꼭 참석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체놀이로는 △27일 오후 1시=어깨걸기 팀보 △28일 오후 1시=단체줄넘기가 있으며 학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화제=26일 오전 9시 △실내공연=27일 오후 6시에 학관 소강당에서 △주점=26일 △실외공연=28일 오후 6시 등이 학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8시간 동안 학관 앞에서 '아름다운 가게'와 바자회 물품을 판매한다.

불교생태학 세미나 29일 열려

제4회 불교생태학 학술세미나가 오는 29일 중강당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다.

'과학기술의 생태학적 혁신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불교 생태학 특성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교내 생태환경관련 학술지형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불교생태학 세미나는 각 단과대학별로 순회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공과대, 정보산업대, 불교문

화연구원, 교육기획단 주관으로 열린다.

'불교의 사유방식으로 본 과학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도법스님(전 실상사 주지)이 기조 발제 강연을 하며 주제는 △불교생태학을 위한 생산과정의 실천적 방안 △생태도시 조성 기반기술 개발사업 △자원 순환의 생태학적 고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윤리 △토양생태와 오염정화 기술 등이다.

기업설명회

오늘(11일)부터

취업지원팀(팀장=한문우) 주최로 각 기업들의 채용 상담회와 설명회가 오늘부터 진행된다.

경향신문 채용설명회 △일시=오늘(11일) 오후 2시부터 △장소=다항관 세미나실 △내용=회사개요, 입사전형, 기자생활과 관련한 동영상 관람, 현직기자, 사원과의 대화

LG유통 채용설명회 △일시=오늘(11일)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장소=본관 중강당 △내용=담당자 소개 및 홍보 동영상 시연, 회사 소개, 상세 직무 소개, 채용 안내와 인사

코리아리재보원 상담 및 지원사 배부 △일시=내일(1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장소=다항관 세미나실

주식회사 교원 채용상담회 및 설명회 △일시=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장소=다항관 세미나실

대학원 문화제 27일부터

도서할인·벼룩시장 등과 연계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신정민·국문 석사과정)가 오는 27일부터 3일간 가을 학술문화제를 개최한다. 다양한 강연회와 학술논문 발표, 영화제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27일=개막초청강연, 영화상영 △28일=학술논문 발표, 영화상영 △29일=문화초청강연, 영화상영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과 두리터,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25개조의 학술발표가 있고, '고구려 벽화읽기' 등의 주제로 초청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영화제는 동유럽 다큐멘터리 전으로 상영될 예정이며, 세부장소와 시간 등은 추후

공지된다. 또한 행사기간 내내 두리터에서는 학생들의 쓰던 서적과 컴퓨터, 생필품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벼룩시장이 열리며, 본교 후문 근처 서점과 연계해 약 2주간 도서를 30% 할인하여 판매한다. 학부생·대학원생 누구나 초청강연회 등에서 나눠주는 할인권을 갖고 서점에 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학원 복지국 관계자는 벼룩시장과 관련해 "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있는 벼룩시장을 부흥시키고 실질적인 학생들 간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

경주캠, 백주년 기념사업 계획

올해 말까지 대외협력팀으로 공모 접수

우리학교 경주캠퍼스가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번 접수는 경주캠퍼스 기획처 대외협력팀 핸드오피스와 이메일(ict@dongguk.ac.kr)로 받는다. 공모양식은 경주캠퍼스 홈페이지(http://www.k.dongguk.ac.kr) 공지사항에서 찾을 수 있다.

공모 내용은 △건학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사업 △우리학교 100년 역사와 경주캠퍼스 발전에 관련된 사업 △학술관계 관련 사업 등이며 학내 구성원 외에도 동문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이번 기념사업은 △대상 1명=50만원 상당 △최우수상 1명=30만원 상당 △우수상 1명=20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학기 등록금, 걱정되신다고요? 최고 70만원을 잡으십시오!

제42회 동대 학술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2. 응모요령 : 3개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3. 시 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70만원, 가작 1명 50만원
4.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5. 제 출 : 10월 25일(월) ~ 11월 12일(금)까지 방문·직접·우편 접수
6. 입상발표 : 2004년 11월 22일자 동대신문
7. 문 의 : (02) 2260-3491~2

제19회 동대 문학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시부, 소설부, 희곡·시나리오부
2. 응모요령 : 시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3. 시 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4.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5. 제 출 : 10월 25일(월) ~ 11월 12일(금)까지 방문·직접·우편 접수
6. 입상발표 : 2004년 11월 22일자 동대신문
7. 문 의 : (02) 2260-3491~2

13th English Essay Contest

생각에 힘이 있는 당신!
11월 5일, '글'과 함께 달리자

누 구? 생각에힘이있는 국민 모두
언 제? 2004년 11월 5일 오후 6시 30분
어 디 서? 명진관 A104
상 품 은? 참가자 모두에게 기념품
상 금 은? 1등 2등 3등 장학금 차등 지급, 4등 TIME 6개월 구독권
참가신청은? 11월 5일 오후 5시까지 V동 본사 편집국
그 거 말 고 는? 한영/영한 사전 지침 가능.

문의 02) 2260-3493 / dgpost.dongguk.ac.kr / kaedy@dongguk.edu

주 최 동국대학교 영자신문사 | 협 찬 TIME(주) UPA TIME KOREA

특성 화사업 탈락 원인과 향후 전망 점검

교원 확보율과 정원감축여부가 당락 열쇠

내년부터 특성화 장기지원 방침 ... 대학간 경쟁 더욱 치열해질 듯

우리학교가 2004학년도 대학특성화지원사업에 탈락해 다음해에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특성화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수도권과 지방대학으로 나뉘며 수도권의 경우 특성화 계획과 실적에 우수한 27개 대학을 선정해 600억 원을 지원한다. 우리학교는 지난 8월 '총무로·강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영상문화분야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해 정원 1만명 이상인 수도권소재 20개 대학과 경쟁했으나 아쉽게 탈락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을 살펴보면 대규모 대학(정원 1만명 이상)의 경우 고려대와 국민대 등 11개이고 중소규모 대학(정원 1만명 미만)은 강남대 경인교대 등 16개이다. 대규모 대학은 정부로부터 1년간 최대 41억5천만원에서 최소 27억2천만원, 중소규모 대학은 18억4천만원에서 8억9천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표 참조>

특히 올해 경주캠의 소프트웨어·디지

털콘텐츠분야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에 선정됨에 따라 5년 간 총 57억여원을 지원받게 됐지만 서울캠이 탈락해 아쉬움이 크다.

사업기반 조성 됐지만 정원미감축 등 탈락원인

우리학교가 이번 사업에 탈락한 원인으로서는 낮은 교원확보율과 정원미감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교원확보율과 학생정원 감축(2003~2005학년도)이 각각 10%로 평가비중이 높아졌으나 현재 우리학교 교원확보율은 특성화사업 참여조건에 해당하는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경쟁대학보다 낮은 형편인 것이다. 또한 서울대 등 이번 사업에 선정된 11개 대규모대학 중 7개 대학이 이미 정원을 줄였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정원을 감축한 12개 대학 가운데 10개 대학이 특성화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학교 영상문화분야가 타대학보다 전통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총무로

와 강남지역은 이미 특성화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영상문화사업기반이 조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성화추진계획과 실적부문에서는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성화추진단 구성 준비

정부는 다음해부터 3~5년 간 다년도 특성화지원사업을 발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길게는 5년 동안 150여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못받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학교측은 벌써부터 다각도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다음해 신청할 사업분야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영상문화콘텐츠분야 인재양성'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특성화추진단(가칭)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성화추진단은 기획인사처를 비롯해 영상정보통신대학원과 국문학과 등 영상문화분야와 관련 있는 학교본부·대학원·학부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영상문

화분야 교육과정 개발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한시적(Task Force Team)인 기구이다. 이를 통해 전체 평가비중의 65%를 차지하는 특성화추진계획과 실적을 더욱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기 교원을 30여명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서울캠 기준 대학기 신규교수를 10명 내외에 채용하면 것보다 3배 가까이 증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해 강의전담교수를 20명이상 초빙함으로써 내년에는 교원확보율이 57~58% 정도로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교원확보율이 55%로 높아질 것임에 따라 타대학 역시 교수를 대규모 확충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정원감축문제 쟁점될 듯

무엇보다 정원감축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안에 따라 우리학교는 2006학년도부터 학

<표> '2004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대학별 지원 예정액 (단위 : 억원)

대 학 명	대 학 명	지 원 예 정 액
1 고려대학교	21세기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34.3
2 국민대학교	UIT(Ubiquitous IT)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27.2
3 명지대학교	대학병원식 실무교육을 통한 전문 건축설계인력 양성	27.8
4 서울대학교	창조적 지식인 육성을 위한 기초교육 혁신	41.5
5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시스템 혁신	35.8
6 연세대학교	다학제간 교육 및 연구제대 구축을 통한 차세대 생명공학 경쟁력 강화	32.0
7 이화여자대학교	포스트 게놈시대의 다학제간 생명과학 융합체계 구축	36.5
8 인하대학교	글로벌 물류전문인력 양성 : 「GALA2010」프로젝트	29.8
9 중앙대학교	국악교육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36.4
10 한양대학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위한 융합기술기반 핵심소재분야의 글로벌 리더 양성	38.9
11 홍익대학교	메타(META) 디자인 교육시스템 구축 - 인프라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29.8

부정원을 줄임 계획이지만 각 학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정원을 감축할 경우 재정확충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정부지원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 없는 만큼 대학 구성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이번 특성화지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은 장기적인 대학중

합평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단지 특성화사업 준비에만 집중할 경우 교육강화라는 학교의 지향점에 어긋날 우려도 있는 만큼 특성화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하고 교육의 질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최광제 신임 직원노조 지부장 인터뷰

“학내 구성원 화합 중점적으로”



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서로 칭찬과 격려 그리고 비난이 아닌 비판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개교 100주년이 다가오는 만큼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내구성원들과 각계각층의 동문 등이 참여하는 학교 공동 행사로 운동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 우리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타 대학과는 달리 인력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이 없었다. 현재 이들의 처우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현재 교직원 임금인상요구 계획은.
- = 지난 99년도 LG경제연구원 이 행 정 조 직 개 권 을 위 해 실시한 경영진단에서 우리학교가 학생대비수 노동자가 전국대학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소재 대학 중 보통수준의 인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학내 구성원 관계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 = 전일 총장 때부터 직원과 교수 등 학내구성원들이 침체된 분위기 속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일의 능률과도 연관돼 있다. 이에 서로 간의 친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제203차(9월 20일)·204차(10월 6일)재단 학 교 법 인 이 사 회 결 과 분 석

총장 권한 강화로 효율적 학교운영 기대

불교병원장 선임으로 개원준비 가속화 예상

▲총장권한 강화 = 교원 임명권에 관한 일부 권한이 이사장으로부터 총장에 게로 위임됐다. 정관시행세칙 5장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연구교수, 임상전임교원, 조빙교원, 시간강사 등의 비전임교원은 총장이 임명 △계약직 직원은 총장이 임명 △조교, 연구원, 전임의, 전공의 등은 총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개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인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학교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총장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구성원들은 이번 정관시행세칙에 개정된 총장의 임명권 강화 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염준근(통계학)교수회장은 "인사권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임명권을 총장이 갖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며 "이외에도 학교의 인사·경영·행정에 관련된 일은

재단이 아닌 학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사립학교법은 교원 임명권을 재단이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로 사립학교법 교원 임명권 관련 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율적인 재단의 인사권 이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본교도 이번 정관시행세칙 변경에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총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삭제됐다.

▲불교병원장 선임 = 한편 일산불교병원장에 이석현 전 고려대 구로병원장이 선임됐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이 원 장의 발탁배경으로 "지난 2000년 4월부터 만성 저자였던 고대 구로병원을 흡수한 영으로 전환시켜 경영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본교는 지난 2002년 하권의 삼성서울병원장을 내정했으나 이사회 전 승인과 정에서 종교적 이유로 내정이 취소된 적이 있다. 이후 거의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일산불교병원장이 새로 선임된 것이다.

또한 일산불교병원 한방병원장에 한의과대 이원철 교수, 행정처장에 성이재 대한병원협회 전사무총장이 함께 임명됨으로써 일산불교병원 개원준비가 가속화될 듯 보인다.

▲분과위원회 개편 = 지난 6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지난 이사회 때 이뤄진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도 선임됐다.

분과위원회는 기존에 명칭만 존재했을 뿐 그동안 뚜렷한 활동을 해오지 않다가 이번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개 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로 통합됐다.

△교육인사위원회에 현성 성오 영배

영담 헤미 스톱, 황창규 이재장 이사 △재정분과위원회에 지관 현성 성오 영배 영담 장운 스톱, 황창규 이사, 이홍섭 감사, 신규 승려 감사 1인 △의료경영분과위원회에 현성 종상 영배 영담 스톱, 류주형 황창규 이사, 이홍섭 감사, 신규 승려 감사 1인, 박수성 전 의과대학장으로 결정됐다.

이는 이사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된 것으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추후에 위원회 내부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이사회에서 위임하거나 각 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연구 및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써 이번 체제 정비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생협 모니터 제도 시행

1. 실시 기간 : 2004년 10월 15(금)부터 동계방학전 까지
2. 모집대상 : 학부 7명(교원, 직원, 대학원은 기모집함)
3. 실시 이유
 - 1) 생협이 관리·운영하는 매장(직영, 임대) 상태 점검
 - 2) 매장 이용 고객들의 의견수렴 및 불편사항 시정
 - 3) 일반 조합원(학생 및 교직원)의 생협 운영에 직·간접 참여
4. 실시 방법
 - 1) 모집 방법 : 동대신문 등을 통한 공개모집(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 2) 모니터 요원 자격 : 생협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문제점 지적할 수 있는 동국 구성원
 - 3) 모니터링 대상 매장 : 직영 및 임대하는 전체 매장
 - 4) 모니터 요원 업무분장 : 식당 6명, 임대매장 2명, 직영매장 2명으로 하위 월별 순환배치
5. 모니터 요원 활동 내용
 - 1) 매장의 청소상태, 위생상태, 친절 서비스 점검
 - 2) 식당의 경우 및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내용 조사
 - 3) 식단(매뉴구성)에 대한 내용
 - 4) 주 1회 모니터링한 내용 취합 및 월 1회 모니터링 결과보고
6. 모니터 요원 운영형태
 - 1) 업무분장된 내용에 따라 매일(토요일 제외) 운영
 - 2) 주 1회 모니터링 내용 취합 및 의견 교환
 - 3) 월 1회 모니터링 내용 요약 정리
 - 4) 생협에서 마련한 모니터일지를 근거로 모니터링 실시
 - 5) 주방 내의 모니터 경우 식당관리장 및 영양사와 동행 조사
7. 모니터 요원 특전 : 주당 5장의 식권 지급

* 연락처 : (Te) 02-2260-8948, 8950, 8954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취업 실전모의면접

다음과 같이 2004년도 취업대비 실전모의면접을 개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일시 : 2004. 10. 15(금) 13:00 ~ 17:00
2. 장소 : 중강당(분관)
3. 면접인

성 명	근 무 처	직 위	비 고
윤찬진	KBS 꿈의 피라미드	이사	
나승인	LG 텔레콤 인사팀	과장	
김동기	동원 F&B 인사팀	팀장	
김기사	코리아리크루트(주)	부장	

 - 실전모의면접을 통한 면접능력의 배가
 - 서류전형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의 채점기준 및 작성법 소개
4. 면접형태 : 개별면접, 압박면접, 토론면접, PT면접 후 단계별 강평 실시
5. 문의 : 학생처 취업지원팀 ☎2260-3054~5

학 생 처

동국인 Career Power Up 프로그램

‘동문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연다’

동국인 Career Power Up 프로그램은 졸업생 추수지도(指導)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 본교를 졸업한 동문들에게 최신 실무지식을 제공하여 사회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문 상호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자 대외협력처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마케팅, 문제해결, 전략기획, 협상, HRD 등 5개 영역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의 내실있게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전체 이수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하여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외협력처에서는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전문가 상담, 동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동문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실질적 혜택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행사 참가 방법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상의 공지사항에서 '동국인 Career Power Up 프로그램'을 클릭하여 간단한 참가 신청서를 회신하면 되고 참가자는 추후 계획 중인 동문 서비스 프로그램(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동문 상담 프로그램, 동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전화 (02-2260-3883:대외협력처) 이며 이메일 문의는 (ilove@dgpu.edu) 이다.

회 차	특강 주제	강의 개요	시간	강 사
1회차	21C 마케팅 뉴 패러다임	한국형 마케팅 실무적 마케팅을 위한 실전 총론	5	조서환 박사
2회차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문제해결 방안	논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기법, 활용 방안 제시	5	섭외 중
3회차	전략기획 실무과정	전략의 기본 프레임 워크 전략의 수립 및 실행	5	미정
4회차	Biz Negotiation Skill	협상의 준비에서 평가까지 세부 스킬 및 프로세스	5	미정
5회차	HRD 기본과정	자신의 가치를 조직의 가치로 퍼스날 브랜드를 위한 전략	5	미정

- 1회차 강의 : 21C 마케팅 뉴 패러다임
 - 강의제목 : 21C 마케팅 뉴 패러다임
 - 강 사 : 조서환 박사
 - 일 시 : 2004. 10. 26~27 (화, 수 오후 7~10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예술극장 (지하철3호선 동대입구)
 - 수강인원 : 선착순 300명 (신청자 우선)
 - 세부내용 : 동국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대 외 협 력 처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 ... 근린국가 협력 중요

공동체 자각으로 교류·화합통해 상생의 길 모색 주력해야 한중일 3국간 역사해석 둘러싼 현안해결 공동 노력부터

에코포럼은 생태·환경문제에 관한 여러 학문의 학제적 교류와 실천운동을 지원하는 개방적 학술모임으로 오는 16일 창립한다. 에코포럼의 공동대표인 고건 전 국무총리는 최근 '조화형 문명창조를 지향하는 난저우(蘭州)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연설했다. 에코포럼 출범을 앞두고 본사는 고 공동대표의 연설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고건
에코포럼 공동대표·전 국무총리

네트워크(Network)와 문명

세계는 '정보혁명'과 '글로벌 경제체제'가 도래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의 '세계체제'였으며 동아시아는 그 중심이었다

조화형 문명창조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삼국회의가 비단길의 입구, 퉁황에서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비단길은 동아시아와 서방을 하나로 연결한 최초의 네트워크(Network)였으며, 동아시아 문명 형성에 자양분을 공급한 젖줄이었다. 이 길을 통해 서방과 문물을 교환하였고, 헬레니즘과 인도의 예술, 그리고 불교와 이슬람교도 전파되었다. 물론 비단길은 연약하여 자주 끊기기도 했다. 이 길과 그 주변의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을 놓고 중국, 티베트, 투르크, 위구르, 몽골 등의 쟁패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몽골제국의 해체와 함께 남지나해, 인도양, 아라비아해를 지나는 바닷길로 대체

되었다. 주목할 점은 문명권간 네트워크가 열려 있을 때 이들은 함께 번영했고, 이 네트워크가 해체되면 함께 침체를 맞았다는 점이다. 근세 이전 세계에서 서방과 동방의 문명들은 그 발흥과 쇠퇴의 시기가 유사했다. 안드레 군데 프랭크가 '리오리엔트'에서 역술했듯이, 세계는 '정보화혁명'과 '글로벌 경제체제'가 도래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의 '세계체제'였으며 동아시아는 그 중심이었다.

그러나 바닷길마저 끊기면서 동방은 고립과 침체의 길을 걸었으며, 18세기에 이르러 변방이었던 유럽이 아메리카의 은(銀)을 무기로 세계무대의 중심에 등장한다. 이어서 서구의 '승리'는 서구에 내재되었던 가치에 연유한 필연적 현상이란 주장이 등장하고, 서구에서 배태된 이성, 과학, 생산체제, 정치형태 등이 인류의 보편적 요소로 '보급'된다. 또한 '아시아적 정체'는 비합리적인 '아시아적 가치'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라는 서구중심주의적 해석이 진리로 자리잡게 된다.

아시아의 재등장과 새로운 과제

동아시아의 재부상은 세계차원과 지역차원 모두에게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구 자기중심주의적 발흥은 상호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어

최근 동아시아는 두 세기만에 '근대화'를 이룩하고, 세계체제의 변방에서 중심권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제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 전망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분명 세계의 세 번째 중심으로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1990년 중반, 세계 국민총생산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북미와 같은 24%였고 그 비중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아시아 자본주의의 한계라 했던 금융위기도 훌륭히 극복했다.

동아시아의 급속한 재부상은 세계차원과 지역차원 모두에서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구한다. 세계차원에서 동아시아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여 서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독자적 문명권으로서 인류의 미래에 기여해야 한다. 아시아의 빠른 근대화는 서구 발전모델의 차용 덕분인가 아니면 아시아적 전통에 또 다른 촉진기제가 있었던 것인가 —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항대립적 인식방법과 경쟁원리에 기초한 서구중심적 세계관에 대해 조화형 대안을 찾는 일과 연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역내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는 유교와 한자문화를 공유한 문명공동체이며, EU인구의 4배를 포괄하는 거대한 '자연경제권'을 이루고 있다. 역내교역 비중 역시 EU, NAFTA와 비교해 빠르게 성장하고 자본교류도 확대되고 있으며, 자본투자수익율도 세계최고이다.

이제 초국가적 협력의 강화는 구성원 모두를 위한 상생의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세계차원과 역내차원 모두에서 자기중심주의의 발흥은 상호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논쟁, 다오위타이(신가쿠)섬을 둘러싼 중일대립, 교과서를 둘러싼 세 나라 사이의 갈등 등은 협력확대를 막는 뜻이다. 이들은 모두 패쇄적 민족·국가주의 정서에서 나온다. 이러한 정서는 내부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효과적 동원기제일 수 있지만, 공격적으로 추구되면 패권주의와 제국주의를 낳고 방어적으로 조장되더라도 불신과 적대감을 낳는다. 이 모두 글로벌 시대, 경제블록화 시대, 조화지향의 문명에 대한 요구에는 배치된다.

원융회통(圓融會通)

이분법적 범주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명들의 구체적인 경험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찾고 이를 공유하며 융합하는 데 주력

필자는 동아시아 근린발전과 조화형 문명창조의 원리를 1,400년전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설파한 '원융회통'의 사상에서 찾는다. 원융회통에서는 너와 나를 나누는 이분법적·상호배제적 논리를 넘어, 양자병립을 인정하는 순환적 논리(圓)가 인정된다. 즉 일체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관계망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는(融) 것이다. 그리고 서로 만나 교류함으로써(會) 통하고 화합하게 된다(通) 뜻이다. 원자화된 개체의 집합과 초개인적 구조로 사회를 바라보는 서구적 전통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발상이다.

원융회통은 불교적 개념이지만 조화 속에서 다름을 포용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나 극단을 피해 조화를 도모하는 중용화합의 유가정신과도 일맥상통하고, 다중심·다문화주의와도 상통한다. 그러나 서구의 다원주의나 상대주의와는 다소 구별된다. 원융회통의 사상은 자기중심적 국가·민족주의를 넘어 사해동포의 이상을 포용한다. 서구 문물에 대한 동화전략이나 "아시아 것이 더 우월하다"는 역전전략을 모두 배격한다. 양자 모두 보편성의 전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적 서구', '공동체주의적 아시아' 같은 이분법적 범주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명들의 구체적인 경험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찾고 이를 공유하며 융합하는 데 주력한다.

회통의 주요 의제들

동북아 세 나라의 근린발전을 위해, 그리고 조화형 문명 모색을 위해 함께 할 일들은 이번 회의의

초지자들이 제시하는 의제들을 포함해서 다양하다.

정치적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 경제협력도 강화 문화적으로도 서로에 대한 이해 높여야 동아시아는 하나의 생태계 인식

우선 정치적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당면한 과제다. 이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직결되는 예민한 과제로, 6자회담의 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동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이루고,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평화군축 문제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적은 금융협력은 좋은 출발점이다. 역내 금융위기에 대비한 아시아 통화기금의 조성, 아시아 통화단위의 결정, 무역자유화를 거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낙후지역을 위한 인프라 개발, 몽골의 사막화 방지 등 역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금을 조달·관리하는 국제컨소시엄 설립도 바람직하다. 에너지·식량자원의 협력과 역내 IT통신기반과 유비쿼터스 환경조성 역시 중요한 협력과제들이다.

문화적으로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여야 한다. 나이든 세대는 굴절된 근대사의 체험에서 기인한 편견으로 서로를 재단하며, 젊은 세대는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까운 이웃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 문화유산은 물론 각국의 근대화과정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다양한 학술, 예술, 스포츠, 대중문화 교류도 당연히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는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다.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동북아의 자연환경 오염 문제는 3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지구적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내 국가들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 도시문제도 좋은 협력대상이다. 동아시아에는 지구에서 제일 크고 밀집된 도시권역이 비행거리 한두 시간 안에 집중되어 있다. 한중일의 거대 도시권들은 각기 수천만 명의 인구를 가졌으며,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엔진이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지로서, 각종 공해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호협력은 역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도시의 시대'에 지구촌 다른 도시들에게 큰 기여가 될 것이다.

실천의 길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구성원간에, 그리고 동아시아와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원융·회통할 것인가 우리의 과제다. 여기엔 왕도가 있을 수 없다.

자기중심적·국가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관계론적·세계체제적 관점에서 함께 공유한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관리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일

원융을 막는 관념과 현실의 벽을 허무는 일, 원융을 촉진할 정신적·물질적 공동자산을 발굴·증대시키는 일, 회통을 위해 다양한 만남과 소통의 계기를 확대하는 일,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 모두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함께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일들이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의 전통사상, 즉 가깝고 쉬운 일부터 시작함으로써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자기 사회의 화합과 이웃나라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문명 간 충돌을 질타하고 조화형 문명을 설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스스로 덕(德)과 인(仁)을 실행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남과 밖을 널리 교화한다. 이는 바로 21세기에도 빛을 잃지 않는 동양정신의 정수로 생각된다.

따라서 3국간의 역사해석을 둘러싼 현안들에 대해,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이 요청된다.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적·국가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관계론적·세계체제적 관점에서 함께 공유한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관리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다. 필자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한중일 역사공동위원회 설립해 현안문제를 풀어가기 제안한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한 작은 국제행사에서 회담을 보았다. '1945년, 8·15 한중일 3국의 역사인식 공유'라는 주제로,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작은 국제행사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온 40명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친구들과 5박 6일을 함께 지내며,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을 나누었다. 서로 배운 바가 다르고 시각차도 커 갈등의 순간도 많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헤어질 때 모두들 '역지사지'를 배운 참으로 소중한 체험이라 공감했다는 기사였다.

바로 이것이다. 이런 열린 마음에서 공유의 영역은 넓혀진다. 특히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열린 마음으로 자랄 때, 아시아 근린발전에 조화형 문명창조의 길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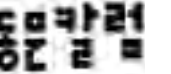
원융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단초는 역시 '원융'의 뜻을 가지고 함께 만나 '회통'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난저우 국제회의는 무척 뜻 깊은 시도로 생각한다.

조화형 문명창조를 지향하는 이 국제회의의 정신이 더욱 심화·확대되어 갈등으로 얼룩진 세계에 새로운 지향점을 던져주길 바란다. 필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동방'을 뜻하는 영어 'Orient'에는 '눈부신, 찬란한, 떠오르는, 태동하는'의 뜻과 함께 '방향'을 바로잡다, '방향'으로 나아가다, '지향하다'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상기할 때다.

위풍당당 동국인

EBSPD(교육 82졸)장 동훈 동문



“주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사회 각층의 목소리 담아내야”



우리학교 명예교수이자 국문학자로 유명한 양주동 박사는 교수로 재직 시절, 제자들에게 “사람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 박이정(博而精) 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는 어떠한 주제이든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두루 알면서도 세밀하게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도 스승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여러 방면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EBS TV 제작2국 팀장이자 PD를 맡고 있는 장도훈(교육82졸) 동문이 바로 그다.

70년대 전국에 TV프로를 제작하는 PD가 총3백 명 남짓 했던 시기. 당시 중학생이던 그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PD란 직업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역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방송에 대한 관심과 PD라는 직업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해져 갔다고 한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본격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 결과, 언론사에 대한 꿈을 같이 하는 친구 6명과 스타터 그룹을 조직

했다.

장 동문은 “그 친구들과 당시 언론사 시험에 출제되던 상식, 영어 논술, 국어 시험에 대비해 서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정보를 교환했다”며 “지금도 그 친구들과 라면을 안주삼아 소주를 마시며 시사 문제에 대해 토론하곤 했던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난다”고 말했다.

그의 그러한 끈질긴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어 83년, EBS 방송국 PD로 입사해 현재 22년째 자신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 그는 앞서서 기획하고 방송하는 내용보다는,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좋아하는 PD로도 유명하다. 실제로 지난 95년에는 카이스트와 공동 기획으로 기초 공학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제의 30부작 특집 시리즈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프랑스 등 각국을 돌며 공학의 전망을 분석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청소년들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사건이 일어난 곳에 직접 찾아가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직접 담아내 방송에 내보내기에는 너무 충격적이라는 이유로 방송불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장 동문은 “이 직업을 택한 후 갖게 된 3가지 신조가 주변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이해”라며 “언론 계통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자신의 주변의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이 일을 하려는 뚜렷한 직업관이 먼저 세워져 있는 것 또한 필수 조건이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입사 후 지금까지 3천여 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했지만 시청자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질책을 받았던 하나하나의 프로가 지식처럼 소중하지만 하다는 장 동문.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그 위치에서 인정받을 때 가장 빛나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2단계 높은 목표 세워 최선을 다해야



고학배 동문과대 국문 98졸 삼성화재, 영업관리

어제는 삼성그룹차원에서 나눔 경영의 하나로 남산결기운동대회에 참석했다. 그 곳에서 모교를 오랜만에 볼 수 있었는데, 졸업한지 7년이 지나 서인지 대학시절의 나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갔고, 감회가 새로웠다. 특히 계절마다 맛있는 남산을 보면 마음이 편안했고, 어릴적 놀던 고향의 언덕같은 느낌이 들곤 했다.

부족한 면이 많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지면을 통해 동문후배들에게 짧게 몇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먼저 대학시절은 황금 같은 시간, 한 없이 즐겨보라는 것이다. 특히, 여행을 권하고 싶다. 그래야만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과,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각종 엔터와 야외활동 등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남아있다. 여름방학 한달동안 서해안부터 남해안까지 혼자 국토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1년간 떠났던 해외여행은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리고 대학동아리 활동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아무리 개인주의시대라지만 아직도 취업하고 회사에 나오면 다른 세대들과 융화를 해야 하는 법이다. 사고와 인식이 다른 세대들을 서로 이해하고 융화하지 못하는 신세대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간혹 있다. 그런 면에서 동아리활동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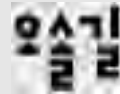
둘째,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보다 2단계 더 높은 목표를 가져보라는 것이다. 대학시절 나만의 목표를 가지고 중앙도서관을 애용했다. 대학교 2학년부부터 하루 15~16시간을 매일 영어, 상식, 명작 독서 등의 수험준비를 했다. 다양한 지식습득을 위해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정치학등에 대한 관심도 필요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했던 그 순간이 그리워진다. 노력 끝에 현재 삼성그룹채용시험을

보게 되었고 그간의 공부나 깊이 때문인지 조금은 수월히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한단계, 두단계 위의 목표를 가지면 최소한 목표는 꼭 잡을 수 있다. 균형적인 감각을 지니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을 접해야 하며 기회는 대학시절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

나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다. 내가 성공하면 대학도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면 대학도 실패하는 법이다. ‘문화’는 집단속 개개인의 성향들이 혼합된 표현양식인데 도미노의 이론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면 옆 동료들도 최선을 다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 집단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남들보다 더욱 노력하는 지혜로운 동국인이 됐으면 한다.

영국에서 해외인턴쉽을 체험한 최예남(경영4)양



“발로 뛰는 정보수집, 꿈을 향한 필수조건이죠”

“활발한 외부 활동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보는 것이 대학생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학교 이곳, 저곳의 설치된 플래카드와 인터넷 정보란을 꼼꼼히 살펴보고 끊임없는 도전을 위해 뛰어다니는 학생이 있다. 지난 학기 무역협회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해외 인턴쉽’에 선발돼 영국에서 6개월을 보낸 최예남(경영4)양. 대학 1학년 때부터 꿈꿔오던 것이 한번의 실패 끝에 재도전을 해 꿈을 이룬 것이다.

“입학 당시 신문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접한 후 정보를 검색해 보고 면접에 대비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해외 인턴쉽의 경우 어학 실력이 뛰어나야만 참여 가능하다고 생각해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 기관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일정 수준의 토익 점수만 넘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 양 역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기는 했지만 선발 과정에서 이 같은 어학실력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최예남 양은 이론적인 것보다 실무적인 것을 배우고, 능력을 쌓고 싶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외부 활동에 참여했다. 그 중, 매일경제 주최 지식 포럼과 통영국제음악회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번 영국에서의 인턴 체험 역시 그에게는 대학시절 가장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한 경험이 됐

다. 한국에 돌아온 후 그녀는 영국에서 일했던 LG전자 가 폐쇄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제는 사회가 제조업이 아닌 IT분야로 눈을 돌려야 함을 깨닫는 기회였다. 평소 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최 양은 영국 기업들의 경제 모습을 이해하고 전망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 발로 뛰는 경험들을 해보는 것이 사회에 나갔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4학년 2학기, 대부분의 학생은 도서관에서 취업을 위해 책과 씨름하고 있을 시간.

이번에는 한 기업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그를 보며 다시 한번 학업과 영어 점수만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산림사회교육과정’ 기획한 강호덕(산림자연학)교수 인터뷰

“열린교육 속에서 숲의 가치 느끼는 기회 될 것”



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산림사회교육과정 ‘내산의 가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기획 의도와 교육내용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이번 교육과정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 현재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림자원과 관련한 이론적 교육을 하고 있지만 ‘숲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대학에서 역시 이론적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외부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기획하게 됐다.

- 산림사회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크게 산림환경과 관련한 이론 강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지시찰이 이루어진다. 먼저 이론 강의 경우 임업경영반, 산림환경반 등 총 4개 강의가 진행되며 우리학교 교수 뿐만 아

니라 국립수목원 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초청돼 산림사업과 환경생태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시찰 시에는 강의와 관련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숲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여러 사업들과 환경을 체험해 보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교육과정에서 숲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하루에 140여종의 생물종이 사라져 가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황사로 인한 사막화 현상 역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UN 산하 국제법 리우 선언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과 기후변화협약 등을 제정해 각국의 숲의 보존을 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만큼 우리나라 역시 숲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부 dgupress@dongguk.edu

지난 달 6일 우리학교 산림자연학과가 산림청 산하 ‘한국녹색문화재단’으로부터 산림사회교육과정 사업을 위해 2,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산림자연학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기획한 결과였다. 이에 산림자연학과 강호덕 교수를 만나 오

산주와 일반인을 위한 동국대 '산림사회교육' 무료강좌 개설

“내산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본 교육은 산주에게는 산으로부터 이익창출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일반인에게는 숲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내산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법, 입산물의 가치 찾기, 산의 공익적 가치 바로알기, 산림환경 복원의 중요성, 풍수지리학 및 부동산 관리, 산삼, 터덕재배법 및 목탄, 목초액 생산법 배우기 등 현장체험을 통해 산과 숲의 가치를 바로 알고, 산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교육은 일반인에게는 숲 환경에 대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과정명 : 산림사회교육사업
- 사업목적 : 국내외적으로 산림의 역할 증대로 산림의 기능 및 중요성 홍보, 산주에게 산림경영 모범사례 분석을 통한 소득원 창출 기회 제공, 이문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열린 교육 시행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 사업 주관 및 후원 : 주관 : 동국대학교 산림자연학과, 후원 : 한국녹색문화재단
- 기간/장소 : 2004.10.9 ~ 10.31(토요일 강의, 일요일 실습)
 - 제1기 : 10.09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
 - 제2기 : 10.16 (동국대학교 세미나실III)
 - 제3기 : 10.30 (동국대학교 공대세미나실)
- 강의과목 및 강사진

과정명	교육과목	강사
특강	우리나라 입산의 미래	국립산림과학원 오경수 부장
공통	산림자원 정책, 산림지형 사업, 산림휴양	산림청 환경관 부장, 산림조합 이장수 상무, 동국대 문화영 교수
임업경영반	풍수지리 및 부동산 관리	한국산림연구소 남효창 소장, 동국대 사회교육원 환경영 강사
산림환경반	산림환경생태, 지구환경보전	동국대 오충연 교수,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 국립수목원 박수현 연구원
단기소득자반	산삼, 장뇌 재배법, 소득생산 생명공학 기술	임업후계자협회 조남상 회장, 국립산림과학원 문홍규 박사, 동국대 강호덕 교수
입산소득자반	목탄, 목초액 생산 이용기술, 입산버섯 재배 기술	동국대 김대영 교수, 국립산림과학원 박원철 박사

제3회 동국청수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제7~10대 회장이셨던 故 청우 최재구 선생의 동국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제3회 동국청수상’ 수상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받습니다.

- 추천대상 : 동국인(동문, 교수, 직원, 학생)
- 구비서류 : 1) 추천서(A4용지, 형식자유, 공적사항 明記) 1부, 2) 피추천인 이력서 및 사진 1부, 3) 공적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1부
- 접수마감 : 2004년 11월 25일 까지
- 시 상 : 상패 및 부상(순금 30등)
- 시 상 일 : 2004년 12월 16일(목) 오후 6시:30 엠베서더 호텔2층 (총동창회 '동국인의 밤' 행사장)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홍보실내
전화 016-896-3916(윤천영) / 2260-3025(신관호)

청우최재구선생추모사업회
회장 류 주 형

건학100주년기념 교사(校史) 자료 수집

건학10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06년 명진학교 개교당시부터 현재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사(校史)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명진학교, 중앙불전, 해학전문,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여 전자화하여 보고 100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동국인의 긍지를 고취시켜 일류동국대야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함.
- 수집 기간 : 2006년 4월 까지
- 수집 장소 : 동국대학교 박물관
- 교사자료 수집내용 : 1) 건학에 기여한 선각자 및 사물에 관한 자료(1906년 전후 자료) 가. 선각자: 이보갑, 김월해, 김우문, 박보봉, 김석우, 홍영호, 김보은, 김포용, 김현암(9인) 나. 사 물 : ▶ 대법산 : 원흥사(서물) ▶ 중법산 : 봉은사(경주 불전사(양주), 용주사(수원), 마곡사(공주), 속리사(보은), 송광사(순천), 금산사(금구), 해인사(해운), 통도사(양산), 동화사(대구), 월정사(강릉), 유점사(고성), 석왕사(안변), 구주사(함흥), 보현사(영남), 선광사(해주)
- 문헌자료 : 가. 서적 및 정기간행물 : 각 기관에서 발행한 서적 및 간행물 나. 문서, 문건 : 공문서, 업무일지, 회의록, 대외부, 학생활동문건 등 다. 각종 증서류 : 학위증, 학생증, 성적증명서, 교직원신분증 등 라. 기념인쇄 및 홍보물 : 다이어리, 달력, 카드, 팸플렛, 포스트 페너드 등
- 기념품 : 교표, 교기, 우승권, 우승기, 상패, 각종 행사기념품
- 복식자료 : 교복, 교모, 체육복, 교련복, 학군단복, 실습복, 행사티셔츠 등
- 사진자료 : 학교전경, 수업장면, 앨범, 슬라이드, 필름 등
- 동문 및 교직원 기념자료 : 휘호, 서예, 유품 등
- 집기 및 비품 자료 : 각종 인장, 현관 등

* 문의 :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02)2260-3120, 박물관 (02)2260-3462

건학 100주년기념사업회

쟁점 I

화폐개혁 논란

경제규모 반영·원화의 국제화 위해 필요

화폐개혁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과 5만원권, 10만원권을 찍어내는 '고액권 발행'이다. 화폐개혁이 마지막으로 단행된 지난 62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총생산(GDP)은 약 2,130배, 소비자물가는 28배 가량 상승했다. 따라서 40년도 더 된 화폐단위가 우리경제의 현재 규모와 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작년 말 현재 4,670조원대인 금융자산은 오는 2009년 전후 0을 16개 붙이는 경(京) 단위로 불어나게 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화폐 100 단위면 물건 사고 파는 것이 해결된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주택 구입도 보통 10만 단위 이내에서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을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억' 단위까지 써야 한다.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통화(원화)의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진다. 현재처럼 1달러에 1,150원 정도 하는 환율로 우리 원화를 국제화하기는 곤란하다. 달러와 비교해 1,000이 넘는 환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75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26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아프리카 후진국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터키가 내년부터 화폐단위를 바꾸면

OECD 회원국 가운데 달러화 대비 배자릿수의 환율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남게된다. 경제력에 비해 화폐단위가 높은 일본도 리디노미네이션을 4차례나 추진하다 결국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통화(원화)가 너무 커지고 국제화 돼 화폐개혁을 염두도 못내고 있다.

지금 화폐개혁을 추진해도 막상 시행하는 데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 사전에 화폐단위 변경에 대비해야지 그때 가서 문제를 인식하면 정책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2조 6,0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최소 5조 원 이상의 부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액권 발행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비용도 적게 들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시중 은행들도 대부분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고 있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용에 따른 불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앞수표가 없어질 경우 향후 3년 간 1조 8,000억 원의 발행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물가상승 우려도 예상처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의 경우 화폐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물가상승 압박이 0.2~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폐개혁이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사회 개혁에 무게를 두고 추진되는 안된다. 90년대 초 금융실명제 도입과 같이 갑작스럽게 경제에 충격을 줘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저런 경제부총리가 "철저하게 공론화과정을 거쳐 화폐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은 화폐개혁으로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60년대 초 군사혁명 직후 단행된 화폐개혁은 그런 이유를 갖고 있었다.

요즘 논의되는 화폐개혁은 경제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자는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도 없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채수환
매일경제 편집국 경제부 기자

불안한 경제심리 자극하는 시기상조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금 쓰는 화폐를 다른 돈으로 대체하지는 않는데 주안점은 지금 단위가 높기 때문에 0을 한 세 개 쯤 떨어버린 새로운 단위를 쓰자는 것이다. 새 돈의 단위를 환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천원짜리 물건값은 변경후 1환이 된다. 일부에서는 유로화로 화폐를 변경한 유럽의 예를 들면서 화폐단위 변경이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없는 기술적인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

유로화로의 변경은 경제통합이라는 거대한 목표달성을 위해 이루어진 일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화폐단위 변경이 아니라 자국통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공동통화를 채택한 통화통합이었다. 역사적으로 화폐단위를 크게 낮추는 경우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물가안정이라는 매우 일반적이고 중요한 거시정책의 목표달성에 실패한 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근대사에서 통화단위 변경의 원조는 1차 대전 후 독일이다. 당시 패전 이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화폐발행이 급증했다. 당연

히 물가상승으로 이어졌다. 화폐발행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이 거듭되며 소위 극도의 물가상승(hyper-inflation)이 발생했다. 일주일 사이의 물가상승률이 300%에 이르는 적도 있었다. 기존 화폐의 가치가 급락한다. 가치가 떨어진 화폐가 부엌에서 불쏘시개로 쓰였고 또는 아이들이 돈 다발을 레고 블록처럼 쌓으며 노는 그 당시의 사진들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화폐단위 절하가 시행되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화폐단위 절하가 여기저기에서 심심치 않게 이루어졌는데 물가안정에 실패하여 높은 인플레이션을 주기적으로 겪어온 중남미국가들이 단골 고객이었다. 물론 근래 우리의 물가상승은 상당히 안정된 편이지만 길게 보면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1973년을 기준으로 보자. 경제규모는 물가상승효과를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은 약 35배 커졌다.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준으로는 약 11배,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는 약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각각 약 3~4배, 2~3배에 그친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물가상승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가상승에 이런 차이가 있으니 상대적

화폐가치, 즉 원화의 교환비율이 예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주장에 따르면 화폐단위 변경은 2조 원 이상의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고 한다. 더구나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는 오히려 불안감을 키울 우려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1962년의 화폐개혁은 그 목적이 잘못에 감추어진 돈을 강제로 끌어내어 산업화 자금으로 쓰겠다는 취지로 행해졌다. 철저히 비밀리 추진되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날 일어났더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바꾸어야 한다는 엄청난 충격이 큰 감쪽쇼였다.

요즘을 단위변경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교환에 따른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과정이 정치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해괴한 일이 벌어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벌써 일부에서는 금과, 외화 사재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심리로 경제가 어려운 때 이런 논의는 불씨에 기름 붙는 격이다. 급한 일이 아니며 특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면서까지 당장 밀어붙여야 할 일은 더욱더 아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센터소장

쟁점 II

'나의 주장' 완전실명제 논란

본교 홈페이지 여론 게시판 '나의 주장'에 일부 게시자의 욕설과 인신공격성 글이 난무하자 완전실명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완전실명제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소규모 사이버 공동체에서 익명성은 자신의 기존 정체성을 탈피해 이를 다양한 방식(아바타, 닉네임 등)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사이버 세계는 그간의 일방적 대중매체와 달리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민주적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대규모 공동체를 대상으로 익명성이 유지된 채 이용되었을 때 종종 폐단이 나타나곤 한다.

재학생부터 동문, 교직원까지 아우르는 본교 '나의 주장'이 대표적 예다.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로 고안된 이것은 불행히도 수만명을 대상으로 익명성과 무한 소통이 가능한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의 입증 책임을 회피하고 여론을 조작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일반 회원의 입장에서 특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 회원들의 관계는 감정의 상처만 남길 소지가 크다.

실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나의 주장은 모르는 사람들과의 감정 충돌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의견교환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홈페이지 운영집단만이 게시자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것은 사실에 대한 접근도의 차이로, 운영 집단이 여론 해석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과 운영 집단의 운영 방침에 불만을 가진 집단에 대한 불신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결국 진실이 은폐된 채 나의 '주장'을 방자해서 의사소통이 왜곡되고 여론이 조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어수선한 상태인 해도 학내 여론 광장의 핵심은 나의 주장이다. 학내 문제에 대한 발언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주장에서 '나' 하나의 주장이 정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어야 여론의 위상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의 거대단위 익명 공동체 속에서는 부득이 '실명제'를 통해 주장의 입증 책임성을 높이는 것으로 여론의 위상을 회복하고 여론 조작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실명제를 통해 합리적으로 학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거세된 '나'와 동아내 이질성을 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차경윤(사대대 정외3)

요즘은 본교 홈페이지의 여론광장 사이트의 '나의 주장'란에 게시자명을 현재 익명제에서 실명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실명제 전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60.26%가 찬성했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필자는 익명제를 고수할 것을 주장한다.

컴퓨터가 발명되고,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위한 익명제의 글쓰기는 컴퓨터가 갖는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 익명성은 누구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거리끼는 마음 없이 또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나타낼 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익명성의 글쓰기는 구성원간의 융인할 정도의 예

타켓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은 그 이름부터 글쓴이의 주장을 나타내는 곳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익명성 하에서 상대방을 비방 또는 폭로

솔직한 자기표현 가능케하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글을 올리거나, 건전하지 못한 말들로, 심지어 욕설내지는 음란한 문장을 올릴 것을 우려하여(실제로 일부 나타났다고 해도) 실명제로 전환한다면 평소 말이 없고 자신을 밝히면서까지 의견을 내세우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이 또한 장애로 작용하

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티즌끼리 서로 갑론을박에 의해 게시판이 자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나의 주장'란 맨 위에 쓰여있는 내용처럼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서로의 얘기를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장점을 무시하고 실명제로 전환하여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실명제를 주장하는 학생들을 위해 '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해 본다.

박광호(연구처 연구지원팀장)

학생상담센터 이용 안내

-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심리검사** : 다면적인성검사(MMPI), 성격유형검사(MBTI), Strong 진로탐색검사, 적성탐색검사, 학과와 직업선택을 위한 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를 수시로 실시합니다(무료). 심리검사 이후 해석은 물론 여러분의 성격, 진로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개인상담** : 전문상담원과 상담센터 관계 교수님이 학업, 성격, 대인관계, 직업 및 진로선택 등 대학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적으로 내방상담, 전화상담(Tel.2260-3931, 3930), E-mail 상담을 실시합니다.
 - 집단상담** :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해갑니다.
 - 진로지도** : 개인의 적성 흥미 소질 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적고양과 합리적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해외유학안내 및 URP추천서 발급** : 해외유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을 실시 하며, 미국 방문시 비자발급을 위한 URP추천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충상담** : 성희롱등 남녀차별에 관한 고충을 상담해 드립니다.
 - 교양강좌개최** : 교양과 정서함양을 위해 학내외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 강연을 실시합니다.
- * 학생상담센터는 본관 2층에 있으며, 전화는 2260-3931, 3930입니다.

학생상담센터

헌법특강 공고

- 기간 : 10월 18일 ~ 11월 3일 (총15회, 일요일제외)
- 시간 : 오후 6 : 30 ~ 7 : 30 (시합) → 7 : 40 ~ 10 : 00 (해설 및 쟁점강의)
- 장소 : 정보문화관 P403 (목요일은 학림관 J201)
- 강사 : 황남기 (현 한림법학원 헌법강사)
- 교재 : 현직교수 출제 진도별 모의고사(40문제)
- 신청장소 : 계산고시학사 2층 조교실(문의전화 2260-8685)
- 수강료 : 계산고시학사 사법시험반 입실자 1만원, 본교 재학생, 졸업생(2만원) 타교생 3만원(100% 출석시 1만원 환불함)
- 신청기간 : 10월 13일 ~ 10월 15일 17시까지
- 기타사항 : 본 강의는 실감으로 진행되며, 수강생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마감 예정입니다.

고시지도위원회 사법시험반

이동병무상담실 개설 운영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본교를 방문하여 새롭게 바뀐 병역제도와 병역전반에 대하여 직접(대면)상담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군미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04년 10월 27일 10시 ~ 15시
- 장소 : 중앙도서관 입구
- 상담원 : 병무청 공보실 직원

총무처

2004년 **NEW** **HIGH LOW** 정기보험

보장은 라이더가, 보험료는 올(LOW)

특징

- 기입연령 : 만 15~70세
- 질병·재해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지급
- 60, 70, 80세의 자유로운 보장기간 설계
- 가족 치료비 보장, 소득공제혜택

지금에서도

- 사망시 1억 2천만원 ~ 1,200만원
- 1~6급 장애시 최고 1억 2천만원 ~ 800만원 지급

보험료예시표

주계약 : 4,000만원, 40세 기준, 60세 만기, 20년납	
남자	여자
순수보장 28,800원	순수보장 13,600원
만기환급 78,400원	만기환급 42,000원

서울동국대학교 우체국
☎ 2273-6507, 2273-1005

보리소

보시라는 이름의 실험

“부유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이 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으면서 살아야 한다.

사적인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원칙이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자본주의는 근대의 산물이다.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다. 어느 시대고 인간에게는 소유에 대한 뿌리깊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의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시장은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돈을 주고서 물건을 받으며, 물건을 받아야 돈을 준다. 이러한 교환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다.

나눔,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가 어려운 이유이다. 보시, 즉 나눔은 돈 안 받고도 물건을 주는 일이며 물건을 안 받고도 돈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는 일이다. 사적 소유에 대한 탐욕이 자본주의의 정신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사회주의도 출현했던 것이고, 자본주의 안에서도 국가·법률의 간섭으로 사적 소유의 무제한한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타율적 강제에 의지함으로써 폭력을 불러오거나 부를 향한 인간의 노력을 경시했다는 점이다.

그 대신 불교의 보시주의는, 과연 우리 인간이 폭력이나 권력에 의하지 않고서도 부를 나누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지를 묻고 있다. 소유에 대한 본성에 비추어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3의 길로서 포기할 수 없는 도전이자 실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효성 불교대 인도철학과 교수

한국의 출판·인쇄산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출판사 매출의 격감과 서점과 도매상의 도산, 일간신문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다.

불황으로 인한 가계 지출의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 요인일 뿐, 경기가 나아진다고 해서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젊은 층의 활자 이탈, 인터넷의 확산, 영상매체의 범람 등 활자 문화의 폭을 조이는 요인이 한국의 출판·인쇄산업을 둘러싸고 있다.

영향력 잃어가는 활자매체

지성의 집합체이자 지식의 보고라는 대학 조차 예외가 아니다. 특정 신문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젊은이가 그 신문을 읽지 않으며, 또 다른 신문을 찬양하는 대학생조차 그 신문에 난 뉴스를 전혀 모르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 나가면 멀지 않은 미래에 활자 출판 인쇄 산업은 몰락할지도 모른다. 이대로 10년을 간다면 이런 일이 정말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업계 내외에 퍼져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말하는 것이 단지 인쇄 출판 산업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심각한 위기의 정체다. 활자매체가 이런 추세로 영향력을 잃어간다면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논단

김무곤 사회과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활자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

매체와 인터넷이 정보·오락과 같은 인간의 정신적 영역을 대부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활자매체 위기의 위험성

그런데 영상매체는 모두가 알다시피 인간을 ‘성찰하게 하는 매체’가 아니다. ‘주입하려는 매체’이며 ‘개조하려는 매체’이다. 또 영상매체가 상징하는 수용자는 ‘생각하는 인간’이 아닌 ‘포획된 청중’이다.

확산은 인간 주위의 정보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렸고 그 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과학화했으며 즉각적인 정보가 실용화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정보의 질’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터넷이 공공정보, 공동체에 관한 정보의 영역을 잠식하게 된 결과, 사회에는 단편적 정보, 선택적 정보, 설득적 정보가 늘어난 대신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정보, 심사숙고하게 하는 성찰적 정보는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자칫 개별적 인간들의 정신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양식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 ‘자각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책과 신문 같은 활자매체는 인간의 자기결정권, 주체적 미디어 접근성 등의 속성으로 인해 개인의 자각을 돕는다. 따라서 활자의 위기는 시민정신의 위기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위기, 나아가 공동체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위기극복 열쇠는 인간 의지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까? 우선 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교육에서 읽기·쓰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 출판, 서점 등 문화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도서간 건립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나 항만과 같은 눈에 보이는 시설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적 성장 또한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정신과 영혼을 스스로 고양시키려는 인간의 의지다.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2260-3491·2 FAX: 2279-1270 문의·제보: dgupress@dongguk.edu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주제에 대한 전달력 키워야

지난호 동대신문은 한가위를 앞두고 학복위에서 진행하는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1면 담기사와 사진, 또한 광고로 다뤄 주며 추석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했다. 그동안 동대신문의 1면 내용이 읽기에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았던 점에서, 이번 신문은 읽기 쉬우면서도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문화면의 ‘떠오르는 문화계 직업을 찾아서’에서 다른 푸드아티스트에 대한 내용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신 직업을 적절한 사진과 함께 소개시켜 주고 있어 흥미 있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4면 해설 면에서는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현황과 공과대의 공학교육시스템을 점검하는 분석 기사를 다뤘는데 평소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지 않던 일반 학생들이 읽어 내려가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른 기사들에 비해 현저하게 기사 매수도 많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려운 내용이 지루하기까지 해, 앞으로는 이에 대한 기사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면은 광고가 실리지 않고 전체 면이 기사로 채워진 데 반해 사진이 별로 없고 전체 면이 글자로 채워져 너무 뻣뻣하다는 느낌을 들게 했다.

여론면의 만평 역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몰라 함참을 들여다보게 한 점에서 앞으로는 주제에 대해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동대신문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며 신선함을 살리려 하고 있는 만큼 기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

곽동근(사과대 신방2)

소나기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법이 악법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 미국의 북 체제 붕괴 의도가 잠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음흉한 생각! △ 인권은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미국은 이를 악용하려 한다. △ 사담부터 구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 냉정하게 판단

해야 한다. △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의 목을 졸라매는 무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 북한은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2배는 더 강하게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대량 탈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말인가. △ 진정으로 이 법의 통과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의심된다. △ 미국과 북한의 관계 악화는 분명 우리와 북한의 냉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우려가 된다. △ 미국과 북한, 끝 없는 숙명의 관계! △ 다른나라가 웬 참견이나. △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한반도의 운명이 안타깝다. 힘을 기르자.

한국판 카스트제도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에 관한 파문을 둘러싸고 나온 말이다. 학생의 특성과 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할 수시모집에 고교등급제의 적용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교등급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강남권학교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까닭이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서 지난해 1학기 수시모집에 실제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것은 비뚤어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역간·학교간 학력차이는 존재하나 그 실질적 반영의 방안이 결코 차별적 고교등급제가 될 수는 없다. 적어도 ‘부모가 돈이 없어 강남에 살지 못해 대학에 떨어질 수 있더니 기가 막힐 뿐’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

이재원(사과대 신방2)

내적미 추구해야

뚜렷한 이목구비에 늘씬한 키는 대부분의 사람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외

모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그 열망은 실로 대단해서 외국인 같은 외모를 위해 많은 여성이 성형수술을 예사로 하기도 하며, 전형적인 동양인의 자그마한 체구는 어느새 콤플렉스가 되어버렸다. 늘씬함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 바로 여성의 키를 높여주는 하이힐이다.

하이힐을 신으면 가슴이 앞으로 당겨지고 각선미가 돋보인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많은 여성들이 보기에 아찔한 하이힐을 즐겨 신는다.

하지만 가시적인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이전에 신체의 건강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믿고 싶다.

높은 하이힐은 발 모양의 변형과 척추의 휨을 유발하여 디스크나 요통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여성들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욕구는 이해한다. 하지만 현재의 아름다움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굵은 하이힐로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을 높일 것이 아니라 툭툭 튀는 아이디어로 자신만의 개성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을 지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채연화(사범대 교육2)

남북관계 우리가 힘쓰자

북한인권법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북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에서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 수가 더욱 급증해 사회적인 최대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우리나라와의 관계 역시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힘들 것이다.

여당에서도 미국이 이 법을 만든 배경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자칫하면 남북관계 체제를 경색시키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유의하여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자칫하면 현재의 관계마저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과 북 사이에 있는 한평생전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종규(불교대 불교2)

동국대 출판부 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1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 및 한국인상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인 상은 주로 프롤레타리아 계열 등 제한된 작가들에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또한 대체적으로 민족적 편견과 왜곡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또한 여성 잡지 수 백 권을 다 뒤져도, 그곳에는 ‘조선’이라는 글자조차 발견할 수 없다. 이 점은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 및 한국인상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아주 상징적인 지적으로 주목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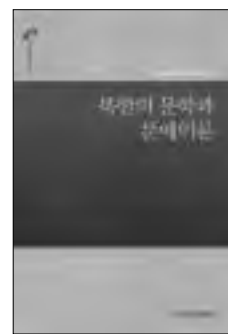
2 금계요략서강

이 책의 내용은 우선 원문(原文)을 단락별로 교감(校勘), 사해(詞解), 해설(解釋), 제요(提要), 강해(講解), 안어(按語) 등의 차례로 정리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을 위한 첫걸음으로 뒷날을 기약하면서 남겨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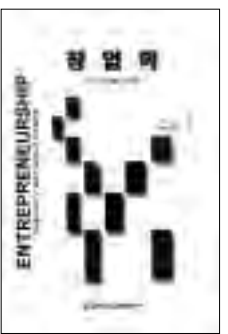
3 작품 중심의 독일문학사

이 책은 독일문학사 초대로 ‘작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종래의 독일문학사들이 대부분 사조 중심으로 기술됨으로써 작위적이고 경직된 시대구분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반해, 이 독일문학사는 작품을 중심 축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책읽기의 맛을 보여준다.



4 북한의 문화와 문예이론

북한의 문화와 문예이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엮은 것이다. 있는 그대로 북한문학을 바라보는 것은 분단이 빚은 서로 다른 역사의 궤적과 삶의 풍경을 이해하고, 통일된 민족국가를 상상하고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문화와 문예이론>은 북한문학을 규정하는 문학제도와 문예이론을 중심으로, 장르론과 작품론 그리고 연구전망 등을 폭넓게 담아내었다.



5 창업학

전문 서적의 출간으로 창업학에 관한 전문 지식이 많이 보급되었다. 하지만 국내의 창업학 수준은 국제 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이 책은 창업학을 학문으로 배우고자 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 창업 컨설턴트, 벤처 기업인과 벤처 캐피탈리스트, 기업내 창업자, 창업 정책 전문가 등을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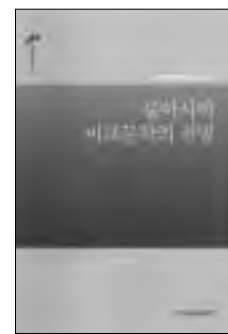
6 계몽의 기획

이 책은 17~18세기에 태동하여 19~20세기에 새로운 세계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계몽주의 또는 계몽기획에 관한 연구논문들이다. 이 책의 내용은 이미 여러 학술잡지를 통해 발표된 원고를 기초로 손질한 것이다.



7 원예·조경식물의 학명

조경식물학을 공부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식물의 학명이다. 식물의 학명을 읽고 이해하고 암기한다는 것은 영어 단어 외우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말하는 식물의 이름들을 향명(鄕名)이라고 해서 지방마다 다를 수 있고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르게 부른다.



8 동아시아 비교문학의 전망

이 책은 최근 관심이 높아진 동아시아 담론을 둘러싼 비교문학 연구의 소중한 성과들을 한데 모았다. 근대 이후 서양문화가 급속히 밀려들면서 뒷전에 밀려나 있던 동아시아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서구적인 근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진지한 모색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비교문학의 전망>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가 오랫동안 가꿔온 문화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비교문화적 관점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달하나 천강에

언어 정화가 주는 훈습(薰習)의 힘



김혜숙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나라" 이후 불가(佛家)에서는 '훈습(薰習)'이라 하여, 향기를 풍기며 살 수 있도록 마음을 갈고 닦는 수행을 한다. 사람이 살아가며 인품을 고결하게 가지기 위하여는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이 마음의 본체를 바르게 드러내는 데는 바른 언어 사용이 큰 몫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어는 인간의 영혼 안에 담겨있는 감동의 부호다"라고 말한 바 있듯이, 말은 마음의 표현이요 영혼의 얼굴이라, 언어를 정화하는 행위는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훈습의 힘을 지닌다. 그러나 온 세계에 우리의 영혼을 올바르게 드러내려면 먼저 우리말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 대학인들의 국어 사용 실태는 어떠한가? 컴퓨터 통신으로 오염된 문법과 잘못된 언어 습관, 공공연하게 남발하는 은어·비속어·유행어, 부자연스러운 외국어와 상황에 맞지 않는 높낮이 표현들! 언어 규칙에 상관 없이 편리함과 유행을 좇는 이런 표현들이 비린내 진동하는 썩고 더러운 마음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안다면 과연 이런 표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육말(비어)은 거친 행동을 낳고, 거친 사회는 정겨움과 생동감을 앗아간다. 경박한 유행어는 한탕주의를 낳고, 이런 임기응변의 사회는 요령과 기교만 늘어가는 적당주의가 자리 잡는다. 출처도 알 수 없는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은 속 빈 과시욕으로 우리 겨레어를 죽이는 사대주의를 낳는다. 말과 글을 올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써야 하는 까닭은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문화를 이어 받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연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 규범을 익히는 것에는 소홀하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데 절대적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훈습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무엇을 배우고 깨닫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우선 어문 규범을 정확히 익히고, 그 동안의 잘못된 언어 습관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입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읽고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쓰며, 이것이 바탕이 된 말하기를 실현함으로써 인간다운 지혜를 넓혀 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우리말은 우리 문화를 바로고 풍성하게 하고 고수성과 질서를 유지시키는 힘을 지닌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가, 언론, 가정, 학교는 물론, 개개인 스스로도 내 것을 돌아보고 다시 찾아, 담당하고 자랑스레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할 시기이다. 국가는 우리말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하고, 외국어 남용에 대한 언어 부담금을 물리는 방법, 국어 교육의 강화 등-해야 하고, 가정·학교에서는 우리말의 바른 언어 규범을 가르치고 활용하며, 우리 각자는 바른 말, 아름다운 글을 쓰고 가꾸고 우리말에 정겨운 애정을 갖게 하는 길잡이 노릇을 하여 사회 속에서 맺을 실한 열매를 위한 씨알로 뿌려져야 할 것이다. 수박이 처음 싹 틀 때는 썩썩처럼 작지만, 꼭지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몸통이 늘어나고 맛난 과실이 되듯, 시작은 비록 작지만, 언젠가는 우리말, 우리 겨레, 우리 문화의 넓고 깊은 이해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향기롭게 가꾸는 '훈습(薰習)'이 아니겠는가!

석가모니가 제자 아난다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썩은 노끈 한 도막과 형질 조각이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되었다. 버려진 지 오래 되어 썩고 삭은 것들을 보며 석가모니가 무엇이든 쓰는 물건인지 물었다. "노끈 도막은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생선을 엮었던 것인 듯 하옵고, 형질 조각은 향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향을 썼던 것으로 보옵니다." "그렇구나! 사람도 이와 같이 처음에는 모두 맑고 깨끗했으나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풍기는 냄새가 달라지느

사설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

본교가 대학특성화지원사업에서 탈락하고 중앙일보평가순위도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났다. 100주년을 570여일 앞두고 명문사학으로 재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이같은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학교발전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학교측이 대규모로 교원을 확충하고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하려는 등의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총장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되고 불교병원장이 선임됨에 따라 교육강화사업과 병원개원준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우선 예산확충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다음 학기에는 강의전담교수를 포함해 교원 50여명을 충원할 계획인 만큼 상당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는 등록금의존율이 높은 본교 특성상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재·종단과 동문들에게 본교가 처한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발전기금을 좀더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과제는 구성원의 화합과 내부결속을 다지는 일이다. 구성원사이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집단의 이익만을 요구할 경우 학교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측은 학내구성원을 하나로 합치게 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0주년을 1년 앞둔 다음해에는 불교병원개원과 교육부의 특성화지원사업, 대교협외 대학종합평가 등 굵직굵직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어 본교로서는 어느 때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스스로 열정의식이나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재·종단과 동문, 학내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 학교가 명문사학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

메아리

10년 전과 오늘

▲우리나라에서 학부제는 지난 95년 처음 도입됐다. 이는 당시 한 학문 분야에 수십 개의 학과가 경쟁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문제점과 특정 학과에 입학하면 졸업 때까지 그 학과의 전공만을 이수해야 하는 학과제도의 폐쇄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정부는 이를 확산시키고자 학부제를 시행하는 대학에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했고 이에 대다수 대학이 학부제를 도입하게 됐다.

원을 줄인 12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특성화사업에 선정돼 사실상 정부의 정책방향에 동조하거나 안하느니라 당락을 결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특성화지원사업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본교를 비롯한 대다수대학이 정원을 줄이고 교원확보율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더욱더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2004년, 정부가 대학 특성화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나눠 특성화지원을 차등화했으며 '선택과 집중'을 모토로 다수대학에게 적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소수대학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 9월 정원감축과 학과통폐합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안과 맞물려 앞으로 특화하지 못한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과감히 '가치치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학부제는 그 이점을 살리지 못한 채 전공교육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이에 많은 학생들이 학과제로 회귀했다. 주요 원인은 우리사회와 대학의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이번 특성화지원사업 평가항목에서 교원확보율과 정원감축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정

원인인 우리사회와 대학의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역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학과 교육수혜자의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 아닌 지원금을 무기로 이를 강요하는 정부의 방식은 10년 전과 꼭 비슷한 듯하다. 최성민 편집장 qwertewq@dongguk.edu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해변의 칸나

장호

너와 나 사이에 너도 아닌 나도 아닌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승과 저승, 꿈과 현실의 고깃마루 같은...

이 구절을 기원해, 나지막하게 읊조려 보십시오. 표현상으로 보면 간명한 대비법이 두드러지지만, 그 뜻과 느낌과 여운은 참으로 깊고 오묘합니다. 지극히 절제된 끝에 워낙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전율을 느낀다면, 그대는 필시 다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삶의 소중함과 똑같이 죽음의 소중함을 아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분이실겁니다.

시인은 아름다운 우리말 '고깃마루'를 너와 나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그리고 꿈과 현실 사이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게 참 '이리랑 이리랑 이리랑 이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노래 부를 때의 가슴 편하고 콧날 찡한 기억의 역사적 계보를 불러내는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너도 아닌 나도 아닌 것'도 독특한 조화의 미덕을 짐작하게 해주는데, 어찌 보면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한 축복의 주례사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생사의 길을 달리한 이들의 간절하면서도 의연한 초혼(招魂)소리 같기도 합니다. 짧은 구절 안에 참 많은 이야기 감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시인 장호(1929~1999)는 동국대학의 전신인 해화전문 출신으로서 모교 교수를 역임했고, 특히 산을 사랑하여 그와 관련된 좋은 저작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윤재웅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동국만평

이호선 icezz@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곽주간 부주간 구본철 편집국장 류연성 편집장 최성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건학 100주년 동국도약기원 100만 등(燈) 달기

동국사랑, 손모아 마음모아...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한데 모아 동국의 도약을 염원하는 「건학100주년 동국도약기원 100만 등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의 헌동이 2006년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중심대학으로 웅비하는 100년 동국과 여러분의 앞날을 환하게 밝히는 지혜와 복덕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동국사랑에 한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참여안내

- 참여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의 정성을 소중히 접수하여 한등씩 헌당함
■ 접수기간 2003년 8월 ~ 2006년 5월 8일
■ 부동산, 주식 및 유가증권 등 수종물품도 가능
■ 무통장입금 (예금주 : 동국대학교) 조흥은행 : 313-03-002943 외환은행 : 065-13-19061-0 신한은행 : 216-05-005036 국민은행 : 068-01-0373-353 제일은행 : 107-10-119210 우리은행 : 064-032276-01-004 우체국 : 012328-01-001567
■ 헌등하신 분의 명패는 본교 정각원에 보존됩니다.
■ 100만원 이상 기부하시면 동국대학교 대각전에 부처님을 봉안하여 드리며, 동국VIP카드를 발급하여 본대학교 부속 병원 어디에서든 의료비 할인혜택과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행 및 세금공제

동아리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새로운 발상으로 '제2르네상스' 향해

현재 본교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동아리는 70개다. 그러나 현재 동아리는 '사람부족'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로 존폐위기에 처했다. 이는 본교뿐만 아니라 여타 대학 동아리들이 겪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 8일 본사 회의실에서는 본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대학동아리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좌담회에는 장우성 '대학내일' 기자, 이동철(독문4) 본교 동아리연합회 회장, 김수린(이화여대 국문2) 국제학생자치단체 'AIESEC' 이화여대 지부장, 송호림(경제2) 본교 학술동아리 '민중사랑' 회장, 정새미(신방2) 학생이 참가했다.



장우성 대학내일 기자



이동철(독문4) 동아리연합회 회장



김수린(이화여대 국문2) AIESEC 이화여대 지부장



송호림(경제2) 민중사랑 회장



정새미(신방2)

사회자 = 동아리가 대학 내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장우성(이하 장) = 동아리의 의미는 사회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현재 동아리는 '대학사회'를 반영하는 여러 것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동철(이하 이) = 80년대 동아리는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종류의 대학·학술문화 등을 반영하는 공동체였다. 그러나 현재는 자기 계발을 위한 공동체, 소모임의 형태를 띠고 있다.

김수린(이하 김) = 대학의 역할이 예전과 바뀐 현실에서 학생들은 자기계발이나 진로와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으로 동아리를 많이 찾고 있다.

송호림(이하 송) = 개인의 친목도모, 유대감 형성 등을 위해 발전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모습을 표출하고, 관심분야의 동아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 이러한 역할은 다소 축소됐다.

정새미(이하 정) = 흥미를 가진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실제로 단과대 소모임 등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다.

전문성 미비 등 사회변화 부응 못 해

사회자 = 현재 본교를 포함한 대학 동아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은 무엇인가.

이 = 본교의 경우 70여개 동아리 중 일상사업, 대외사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동아리는 실제 20여개도 되지 않는다. 많은 동아리들이 단순한 친목모임 수준으로 전락해있다. 또한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지 않아 문을 닫는 동아리도 생겨나고 있다. 예전 동아리들이 대학문화를 창출하고 진보적 담론을 만들어냈다면, 현재는 대중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소비의 주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는 현재 취업난 등 학생들이 동아리에 적극 참여할 수 없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면이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여건은 변화하는데 학술·사회분과 등 다수 동아리들이 커리큘럼 등 면에서 변화를 꾀하지 못해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 2학년이 동아리 회장을 맡는 체제는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지 않나.

송 = 1년 동안 배운 활동은 아무래도 미흡하기 때문에 새내기에게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동아리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로 구성원 전체를 한 번 모이게 하는 것도 힘들다.

김 = 동아리의 특성화, 전문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체계적이고 뚜렷한 활동방향과 내용 등이 부실해 학생들이 동아리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 =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동아리의 장점, 활동내용 등을 알 수 있는 기회인 전반적인 홍보가 부족하다. 또한 학과 수업 외 여러 생활로 바쁜 현재 대학생들에게 동아리는 '내 시간을 희생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김 = 그러한 부분은 동아리 활동이 구성원의 만족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의 경우 전공 수업보다 동아리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나 배움이 더 크다고 판단돼 동아리 활동을 선택했다. 이것

'기꺼이 내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 = 7, 80년대 동아리는 대학문화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다. 당시 학생들이 소속감, 열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학생회와 동아리로 국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기능을 기업의 대학생 프로그램, 자치 모임 등에서 분담해 동아리의 역할이 축소됐다.

또한 동아리의 콘텐츠 부족, 즉 '동아리가 내용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동아리들은 계속 '예전의 아이템과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학문화의 후퇴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

연합동아리·지역 네트워크 구축 필요

사회자 =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 = 매년 초 신입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동아리 설명회 등이 개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모임과 다른 동아리만의 특성을 학생들에게 알려내야 할 것이다.

장 = 기존 동아리는 과거의 영화를 잊어버려야 한다. 옛 추억은 동아리를 점점 퇴행의 길로만 몰아넣기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을 조금만 해보면, 먼저 동아리가 굳이 한 대학 안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 유사한 성격의 동아리가 연합해 서로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공동공연·모임 등을 가져 분야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높일 수 있다. 동아리 중 가장 큰 침체를 겪고 있는 학술분과도 연합동아리 체제는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동아리의 경우 역사성, 전문성과 함께 뚜렷한 활동계획과 내용, 선후배간의 유대감도 중요하다.

또한 외국의 경우 지역중심의 클럽 구성이나, 전문화된 사회 집단과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활성화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동아리의 새로운 위치와 역할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동아리가 기존의 고정관념과 메커

니즘을 뛰어넘는다면 또다시 부흥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 = 앞에서 말한 사회연계활동으로 우리 동아리의 경우 대외협력부서가 있는데, 이곳에서 사회봉사활동 유치나 동아리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선배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낸다. 이는 선배들의 관심 유도와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자긍심 등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 격려할 만한 사항이다.

사회자 = 본교 동아리의 경우 과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얻은 일부 동아리 방이 현재 몇몇 구성원들의 이른바 '여편'의 기능으로 전락했다. 반면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신생 동아리는 강의실을 빌려 사용하는 처지다.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나.

이 =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5개월간 문이 잠겨있는 동아리 방도 보았다. 반면 동아리 방이 없는 동아리들은 자비를 털어 연습공간을 마련하는 형편이다. 중앙동아리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재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고, 개정될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전문성도 없이 쇠락하는 동아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검증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 본교 상황으로 봤을 때 대중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동아리와 그렇지 않은 동아리의 구분은 확연해 질 것 같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슷한 분야의 동아리를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자(정리발언) = 지금까지 본교 동아리의 현실을 중심으로 대학 동아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동아리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해결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사회·정리 =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매체비평

게임 편

팡야

파격·유머를 통해

귀족 스포츠의 대중화 기여



골프는 해외에서는 많은 팬들이 사랑하는 대중적인 스포츠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수를 위한 고급 스포츠로만 여겨져 학생들이나 일반 대중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직접 골프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 세부적인 경기 규칙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일반인들에게 골프는 더욱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이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골프가 온라인 게임 '팡야'를 통해 대중화에 성공했다. 물론 실제 필드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즐기는 골프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골프에 관심을 갖게 되는 데 효과 역할을 한 게임이다.

'팡야'는 골프의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하면서 게임다운 파격과 유머로 대중화에 성공했다. 게이머는 골프에 대한 최소한의 경기 규칙과 '팡야'의 조작법만 익히면 곧바로 골프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으며, 온라인 방식이라 다른 상대들과 경쟁이 가능하다. 실제 골프를 칠 때는 필드의 상태와 거리를 고려해 적절한 클럽을 선택해야만 하는데 이 점은 골프의 매력이지만, 골프 초보자에게는 어렵기만 한 이론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팡야'는 이러한 원리를 잘 몰라도 즉흥적으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를 진행해 가면서 각 클럽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도 장점이다. 게다가 판타지형 게임으로만 일관하던 온라인 게임에서 탈피해 스포츠 장르를 시도한 것도 '팡야'의 특징이다.

'팡야'는 단순한 조작과 유머 넘치는 화면 구성, 매력 만점의 캐릭터로 골프 게임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이전까지 나왔던 골프 게임들이 정교한 시뮬레이션 위주였다면, 팡야는 파격과 유머로 대중들에게 가까워졌다. 하지만 '팡야'는 일본 게임인 '모두의 골프'를 표절했다는 의혹도 안고 있다.

'모두의 골프'는 몇 년 전 해외에서 흥행에 성공한 게임으로, 즉흥적인 조작과 재미있는 캐릭터로 구성돼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다. 때문에 '팡야'를 표절했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팬들도 많은 편이다.

모두의 골프를 '표절'했는지 아니면 '힌트'를 얻었는지 명백하게 가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았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팡야'는 영향을 받은 수준에서만 멈추지 않고 온라인 방식의 구조로 더욱 많은 팬을 짧은 시간에 끌어들이 수 있었다. 온라인 저편에 있는 사람들과 골프를 즐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게임성을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 즉, '팡야'는 그 자체로서 고유의 게임성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팬들 사이의 이견이 있지만 판타지 풍으로 일관하던 온라인 게임에서 탈피해 '골프'라는 장르의 온라인 스포츠 게임으로 대중화 시킨 '팡야'의 잠재능력은 높이 평가 받을만 하다.

이형수
게임평론가



사람이 등불입니다 대학이 등불입니다

동국대학교 교수초빙

(서울캠퍼스) 가상현실/컴퓨터그래픽, 불교생태학, 영어교육, 영구시, 중국어학, 통계이론,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경찰학, 형사학, 방송학 이론 및 실습, 재무관리(투자론), 마케팅, 인사·조직, 홍보/매체론, 회계학, 식품경영, 기능성식품학(동물실험가능자), 통신, 전기재료(고전압기체절연재료), 구조 및 해석, 게임그래픽 및 게임기획, 산업정보시스템, 통계학, 시나리오실기, 영상미디어실기 (경주캠퍼스) 국어학(현대국어문법론), 사회복지방법론(사회복지조사방법론), 사회복지경영론(수영지도가능자), 정보응용, 수학교과교육론(위성수학강의가능자), 임베디드시스템,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임베디드시스템/네트워크보안 및 관리, 비교정치, 국제법, 노동법(사회법), 재무관리(경영분석론), 재무회계(물류회계), 호텔경영, 관광·레저경영, 경찰학, 사상체질과(사상체질학), 한방부인과(한방부인학), 생리학(세포생리학), 신경과(뇌졸중), 흉부외과(흉부외과학), 정형외과(정형외과학)2, 성형외과(수부 및 미세수술),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마취통증의학), 응급의학과(응급의학), 치과(구강악안면외과학), 내과(심장내과학), 산부인과(산부인과학), 신경외과(신경외과학), 산업의학과(산업의학/예방의학)

생리학과(세포생리학), 신경과(뇌졸중), 흉부외과(흉부외과학), 정형외과(정형외과학)2, 성형외과(수부 및 미세수술),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마취통증의학), 응급의학과(응급의학), 치과(구강악안면외과학), 내과(심장내과학), 산부인과(산부인과학), 신경외과(신경외과학), 산업의학과(산업의학/예방의학)

www.dongguk.edu



100년의 아침 그리고 스무살의 아침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